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석사학위논문

중남미 원주민의
다중정체성과 정치행태
볼리비아와 과테말라의 종족정치 비교연구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전 상 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남미 국가 중 원주민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볼리비아와 과테말라에서 종족정치의 성패가 극명하게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두 국가의 원주민 인구 비중은 약 40~60%로 원주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볼리비아에서는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고 원주민 기반 정당이 원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과테말라 종족정치는 원주민 출신 후보가 연속된 대통령 선거에서 3% 미만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원주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 따라 종족정치에 대한 중남미 원주민들의 정치행태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소수자 집단이 해당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활동 혹은 사회운동에 지지하거나 무관심, 반대의 태도를 갖게 되는 메커니즘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원주민 집단의 상이한 내부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다중적 정체성에 주목하며, 기존 연구에서 간과해온 이질적 원주민 행위자의 정치적 선택과정이 종족정치 발전양상의 다양성을 이끈다는 점을 주장한다. 기존 연구들은 종족정치의 등장과 발전을 결정하는 다양한 물리적, 제도적 요인을 통해 거시 구조적 분석을 제시하거나, 정치과정이론을 바탕으로 원주민의 동원유인을 밝혔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유사한 구조 하에서 나타나는 종족정치의 다양한 양상을 아우르지 못하고 경험적 반례로 반박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의 근본적 원인은 원주민의 정치적 선호나 정치행태에 대한 일반화로, 원주민 행위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간과한 데 있다. 원주민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앞선 연구들은 종족 집단에 대한 원주민의 정치적 지지를 당연시하거나 정치행태의 방향성을 단일하게 전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 내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행위자들의 정치판단과 선택과정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과정추적 연구방법을 통해 종족성에 대한 구성주의 논의를

원주민 정치행태 분석에 연결하여, 행위자의 정치적 상호작용과정을 중심으로 대안적 분석틀을 도출했다. 집단행동프레임과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분석틀에 따르면, 원주민의 정치행태는 다중 정체성 중에서 종족성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종족정체성의 중요도는 외생사건과 정치혁신가의 프레이밍에 의해 결정되고, 두 변수의 영향력은 집단의 내부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론의 타당성은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여 입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볼리비아 원주민의 경우에는 새로운 농민조합 모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전통적 사회조직 형태를 강력하게 유지하던 아이마라인들을 중심으로 종족사회와 문화에 대한 위협을 강하게 인식했다. 이에 따라 종족 이슈를 부각시킨 종족조직이 효과적으로 원주민 대중의 동원을 이끌 수 있었다. 경제적 긴축정책 시기 원주민들의 경제적 위기의식이 고조된 경우에도 정치혁신가들이 원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경제이슈를 선점하여 효과적으로 원주민 대중과 연대할 수 있었다. 반면 외생사건마다 원주민의 관심사를 이슈에 반영하지 못한 좌파 운동가들의 호소는 원주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과테말라에서는 계속적인 국가 폭력과 경제 위기 속에 원주민들 간에 계약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집단의식이 공유되었고, 종족성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도시화를 겪은 범 마야운동 지도자들은 점차 원주민 대중과 경제적 격차가 벌어졌고,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서 안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택해 문화적 종족성 이슈에만 천착하였다. 결국 범 마야운동 지도자들은 원주민 대중과의 연대에 실패했고, 지도부에 대한 원주민들의 불신임이 이어졌다. 이에 반해 과테말라의 좌파 조직들은 계급적 정체성으로 원주민 행위자들을 프레이밍하며 동원전략에 성공하였다. 정리하면, 원주민 행위자의 상이한 내부적 조건에 따라 외생사건과 프레이밍에 의해 종족성 중요도가 증가한 경우 원주민 행위자는 종족 조직에 대한 강한 정치적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주민

조직에 가입하거나 원주민 후보에 투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원주민 대중의 종족성 중요도가 감소한 경우 상대적으로 증가한 계급이슈를 선점하는 조직에 전략적으로 연대했다.

종족정치는 오늘날 중남미 사회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종족정당은 중남미 사회에서 주변적 존재에 머물던 원주민 집단의 대의성을 제고시키며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정치학에서 소홀했던 중남미 지역연구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원주민이라는 라벨(label) 하에 간과되어온 행위자들의 이질적 상황과 요구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한 집단의 경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갈등 구도가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인종, 성별, 세대, 계급, 종교, 사상 등 다양한 기준을 둘러싼 현대 사회의 균열과 그 정치동학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사점을 던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종족정치, 종족성의 중요도, 집단행동프레임,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 볼리비아, 과테말라

학 번: 2012-22987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5
1.2.1. 연구대상: 중남미 원주민의 종족정치	5
1.2.2. 연구방법: 과정추적과 국가간 비교연구	6
제3절 논문의 구성	9
제2장 기존문헌검토 및 대안적 분석틀	10
제1절 기존문헌검토	10
2.1.1. 자원동원이론	11
2.1.2. 정치과정이론	15
제2절 이론적 자원 및 분석틀	19
2.2.1. 종족성의 정치화	19
2.2.2. 대안적 분석틀: 행위자의 정치해석 모델	26
제3장 볼리비아 사례분석	32
제1절 볼리비아 원주민의 내부조건	33
제2절 시기별 원주민의 정치행태 분석	36
3.2.1. 식민시기-차코전쟁(1825-1935)	36
3.2.2. 국가후원 농민조합모델(1953)	38
3.2.3. 군부대량학살(1973)	43
3.2.4. 경제적 긴축정책(1980-1990)	48
제3절 볼리비아 종족정치의 발전요인	53

제4장 과테말라 사례분석	56
제1절 과테말라 원주민의 내부조건	57
제2절 시기별 원주민의 정치행태 분석	60
4.2.1. 식민시기-우비코 정권(1821-1944).....	60
4.2.2. 국가주도 노동조합정책(1944-1954)	61
4.2.3. 군부대량학살(1978-1982)	65
4.2.4. 농업위기(1960-1980)	69
제3절 과테말라 종족정치의 부진요인	72
제4절 소결: 중남미 원주민의 정치행태 결정요인.....	76
 제5장 결론	79
제1절 요약 및 정리.....	79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논의의 확장	81
 참고문헌	83
 Abstract.....	97

표 목차

표1-1	중남미 국가별 원주민 인구비중	3
표1-2	볼리비아와 과테말라의 구조적 요인 비교.....	7
표3-1	볼리비아 주요 지역별 원주민 인구비중.....	34
표3-2	볼리비아 원주민 구성	35
표3-3	볼리비아 원주민 빈곤율.....	36
표3-4	볼리비아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과 조직 형성	55
표4-1	과테말라 주요 지역별 원주민 인구비중.....	58
표4-2	과테말라 원주민 구성	59
표4-3	과테말라 원주민 빈곤율.....	60
표4-4	과테말라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과 조직 형성	75

그림 목차

그림2-1	단순 정체모델(The Simple Polity Model).....	14
그림2-2	행위자의 정치해석 모델.....	27
그림3-1	볼리비아 농민조합모델과 정치행태	43
그림3-2	볼리비아 군부대량학살과 정치행태.....	48
그림3-3	볼리비아 경제적 긴축정책과 정치행태	52
그림4-1	과테말라 노동조합정책과 정치행태.....	65
그림4-2	과테말라 군부대량학살과 정치행태.....	69
그림4-3	과테말라 농업위기와 정치행태.....	71

약어 정리

약어	원어	우리말
ALMG	Academia de Lenguas Mayas de Guatemala	과테말라 마야어 아카데미
CEDIM	Centro de Diagnostico Integral de la Mujer	여성통합분석센터
CEDIM	Centro de Documentación e Investigación Maya	마야자료 연구센터
CEH	Comisión para el Esclarecimiento Histórico	역사진실규명위원회
CEPAL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
CNTCB	National Confederation of Peasant Workers of Bolivia	볼리비아 농민 국가조합
COB	Central Obrera Boliviana	볼리비아상부노동조직
COMG	Consejo de Organizaciones Mayas de Guatemala	과테말라 마야조직위원회
CSUTCB	Confederación Sindical Única de Trabajadores Campesinos de Bolivia	볼리비아 농업노동자 유일 노조동맹
CUC	Comité de Unidad Campesina	농민연합위원회
EGP	Ejército Guerrillero del Pueblo	민족게릴라군
FAR	Fuerzas Armadas Rebeldes	저항군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NE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통계청
MAS	Movimiento Al Socialismo	사회주의운동당
MITKA	Tupak Katari Indian Movement	투팍카타리 원주민운동
MNR	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민족혁명운동당
ORPA	Organización del Pueblo en Armas,	무장민족조직
PAC	Patrullas de Autodefensa Civil	시민 방위대
PIR	Partido de Izquierda Revolucionaria	좌파혁명당
PMC	Pacto Militar Campesino	군부와 농민의 협약
POR	Partido Obrero Revolucionario	혁명노동자당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종족성(ethnicity)^①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관점에서, 중남미 원주민들이 종족정치(ethnic politics)^②현상에 대해 상반된 행태를 보이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종족정치는 사회의 세력을 단결시키려 하는 국가와 집단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확장해나가고자 하는 종족 간의 긴장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냉전의 종결 이후 폭발하여 1960년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갔다(Harff and Gurr 2004).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지역의 종족정치에 이어 나타난 중남미 지역의 원주민 정당은 1990년대 제3의 민주화 물결^③에 힘입어, 오늘날 중남미 국가들의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된 원동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Madrid 2005). 이에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원주민 권리를 포함한 헌법개정, 정치적 의석의 지정 등 종족 조직과 정당의 눈에 띄는 행보들이 나타나고 있다(Yashar 2005).

① 일반적으로 종족성은 집단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으로 정의된다. 세습적(descent-based) 혈통과 혈연관계, 언어, 역사, 종교, 전통 등이 종족성의 지표로 활용된다(Chandra 2007). 종족성의 기원에 대한 입장은 원초주의, 도구주의, 구성주의로 나뉘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② 종족정치는 종족간, 인종간, 민족간 정치를 일컬으며 흔히 인종정치(racial politics)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종족정치의 사례는 캐나다, 스페인, 인도, 영국, 이스라엘, 스리랑카, 마케도니아, 남아프리카,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발견된다(Chandra 2007). 이 가운데 원주민 정치는 역사적으로 식민-피지배 관계를 맺은 민족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치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1990년대에 중남미 지역에 찾아온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진전은 비로소 원주민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뒤늦게 등장한 중남미 종족정치 현상이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기존 종족정치 연구(Posner 2004)의 주장과 다르게 종족정치의 성공이 원주민 인구수나 종족분열의 강도와 뚜렷한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특히 볼리비아와 과테말라의 사례를 주목할 만 하다. 두 국가의 원주민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40~60%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다(Madrid 2005). 이러한 물리적 조건은 물론, 원주민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과 탄압, 정치제도의 발전 정도, 경제적 조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종족정치 양상은 상반되게 나타났다. 볼리비아에서는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고 원주민 기반 정당이 원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Van Cott 2005). 반면 과테말라 종족정치는 원주민 권리신장을 포함한 헌법개정 국민투표에 대해 투표자의 57%가 반대의 뜻을 표했고, 원주민 출신후보가 연이은 대통령선거에서 3% 미만의 지지율을 받는 등 원주민 대중의 외면을 받았다(Warren 1998; Stavenhagen 2002). 원주민 인구비중이 중남미 국가 중 상위 5개국에 들어가는 페루나 멕시코에서도 종족정치의 발전은 저조했다(Yashar 2005).

이처럼 중남미에서 원주민 주거밀집지역을 원주민 정당의 든든한 텃밭으로 기대하는 기존의 예측은 어긋났으며, 오히려 중남미 원주민들은 원주민 집단을 대변하는 정치활동에 종종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반대편에서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물리적 조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종족정치의 성패가 극명하게 갈린 중남미 국가들의 비교연구를 통해, 중남미 원주민의 정치화(politicization)와 종족정치의 조직화가 상이한 형태로 진행된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전체 인구 대비 원주민 인구 비율(인구수)	
10% 이상	
볼리비아	62.2(6,200,000)
과테말라	41(5,900,000)
페루	24(7,000,000)
멕시코	15.1(17,000,000)
에콰도르	7(1,000,000)
5-10% 사이	
파나마	12.3(420,000)
칠레	11(1,800,000)
니카라과	8.9(520,000)
온두라스	7(537,000)
5% 이하	
콜롬비아	3.4(1,600,000)
베네수엘라	2.7(725,000)
아르헨티나	2.4(955,000)
우루과이	2.4(77,000)
파라과이	1.8(113,000)
브라질	0.5(900,000)
엘살바도르	0.2(14,500)

표1-1 중남미 국가별 원주민 인구비중^④

출처: CEPAL 2010.

^④ 중남미지역의 인구 조사 기준은 5세 전 사용언어, 부모의 사용언어, 외양, 자기 정체성(auto-identificación), 조사자의 판단 등 국가마다 다양하며, 동일 국가 내에서도 시기에 따라 다른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볼리비아와 과테말라의 원주민 인구비중은 각각 40~80%, 40~60%까지 조사기관과 시기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Madrid 2005; INE 2012, INE 2014).

종족정치 연구는 오늘날 중남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박수경 2014)으로, 본 연구는 국내 정치학에서 소홀했던 중남미 지역연구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중남미 원주민들은 15 세기 초 유럽의 식민 지배로 자신들이 살던 땅을 박탈당한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2 등 시민으로서 제도적·의식적 차별을 받아왔다. 따라서 오늘날 종족정치 현상은 중남미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회 갈등의 정치화 과정으로, 중남미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한다. 백인중심 사회의 주변적 존재(marginal group)에 머물렀던 원주민들이 정치무대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기체인 정당의 대의성이 증가하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남미 종족정치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남미 종족정치 현상은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동학 연구의 관점에서 종족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 사회나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다양한 사회에서도 매우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아프리카 사회의 주류 세력을 구성하는 부족집단간의 경쟁(Posner 2004; Bates 1983)이나, 말레이시아 사회의 기득권을 두고 대립하는 원주민인 말레인과 이민 민족인 화인간의 갈등(Vasil 1980; McGarry and O'leary 2013)과는 달리, 중남미사회의 종족균열(ethnic cleavage)은 주류세력에 대항하는 사회적 소수 집단의 정치적 투쟁의 구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수자 문제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를 기본속성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어느 곳에서나 마주하는 보편적인 과제이다(김상학 2004). 현대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집단은 각기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주류사회의 배타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중남미 원주민집단과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 등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공존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물론 인종, 성별, 세대, 계급, 종교, 사상 등 다양한 기준을 둘러싼 현대 사회의 균열과 그 정치동학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2.1. 연구대상: 중남미 원주민의 종족정치

이 논문의 분석대상은 20세기 이후 중남미 종족조직의 정치적 활동에 원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중남미 지역의 종족정치는 20세기 이후 원주민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실제 정치 무대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정치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중남미에서는 1980년대의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⑤ 을 지나 1990년대 민주적, 사회적 발전을 겪으며 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원주민 조직이 크기나 영향력 면에서 성장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에서 종족운동과 정당이 등장하였다(Mattiace 2003).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정의에 따른다. 오늘날 중남미 지역의 토착민을 부르는 표현으로는 원주민(스페인어:Indígena, 영어: Indigenous people), 토착민(aborigen, aborigine), 출생인(nativo, native), 토종인(original, original) 등이 있다(김은중 2008). 이 중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원주민이며, 본 연구도 이를 따른다. 중남미 원주민의 범위와 특성을 규정하는 공식화된 기준은 부재하며, 개별 국가에서는 인종, 피부색, 거주지, 언어, 공동체 소속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이나 스스로의 판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원주민을 규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별 통계청의 인구조사 기준에 따라 원주민을

^⑤ “잃어버린 10년”(스페인어: La Década Perdida)은 1980년대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난 극심한 경제침체 기간을 일컫는다. 1960~1970년대 대규모로 도입된 외국 자본과 석유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가 경제위기의 원인이었다. 당시 중남미 국가들은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극심한 빈부격차 등 수많은 경제적 문제에 시달렸다(Santiso 2003).

정의한다.

종족정치는 식민지적 권력기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김은중 2008), 원주민 문화를 국가에 연결하여 전통적인 문화와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제도의 건설(Van Cott 2005)을 목표로 하는 정치활동을 포괄한다. 종족조직은 지도층의 과반수 이상이 피지배적 종족그룹의 정체성을 갖거나, 조직이나 정당의 중심적 공약에 종족적, 문화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김기현 2012). 종족정당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다양하게 나타난다. 호로비츠(Horowitz)에 따르면 종족정당은 특정 종족 정당의 이익을 반드시 도모해야 하며, 정당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종족집단에서 발생해야 한다(1985). 그러나 중남미 사회에서 종족정당은 특정 종족집단만을 대변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며, ‘원주민’을 대변하는 큰 범주의 정당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코트(Van Cott)의 정의에 따라 주요 종족집단을 포괄하는 다중 종족정당(multiple ethnic party)을 종족정당으로 정의한다(2005).

1.2.2. 연구방법: 과정추적과 국가간 비교연구

본 논문에서는 과정추적(process tracing) 연구방법을 통해 정치행태분석에 대한 가설과 분석틀을 도출하고,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경험적 사례를 비교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과정추적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패턴 부합”(pattern-matching) 연구방식으로 불리기도 한다. 과정추적 연구는 인과적 메커니즘, 과정, 사건, 행동, 예측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관찰된 현상에 이르는 경로를 규명하고, 기존의 비교연구에서 간과된 변수들을 찾아내어 인과기제를 밝힌다.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개입된 인과적 사건들의 순서(sequence)를 경험적으로 추적하여, 소수의 사례를 기반으로 인과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George and

Bennett 2005). 본 연구는 중남미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과정추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역사적 맥락을 인과적으로 재구성하여 현상과 관련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사례연구로는 집단행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용이한 국가 간 비교연구(McAdam 1996)를 실시하며, 비교대상은 최대유사체계(MSSD, Most Similar System Design) 분석기법을 토대로 종족정치 양상 외에 물리적, 정치경제 구조적 조건이 유사한 볼리비아와 과테말라를 선정했다. 최대유사체계는 유사한 사회체계를 비교하여 국가간 특성차이를 불러오는 독립변수를 밝혀내는 연구방법이다(Anckar 2008). 종족정치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원주민의 인구수와 지리적 밀집도(Posner 2004)는 물론, 식민·내전·군부독재·좌파집권 등 정치적 위기나 기회 등의 주요 구조적 요인(McAdam 1996)을 통제하여 행위자 중심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볼리비아	과테말라
원주민 인구비중	62.5%	40%
원주민 거주지 밀집도	안데스산악지역, 융가스지역의 50% 이상	중부와 서부 고지대, 중동부 지역의 50% 이상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기	1825년 8월 6일	1821년 8월 21일
GDP	전체 \$2,568,400만 (101위) 일인당 \$2,817 (125위)	전체 \$627.8억 (71위) 일인당 \$4,155 (143위)
정부형태	대통령제	대통령제
HDI(Human Development Indicator)	0.675 (108위, 2012년 조사)	0.581 (133위, 2012년 조사)

표1-2 볼리비아와 과테말라의 구조적 요인 비교

출처: Van Cott 2005. INE 2012, INE 2014

볼리비아와 과테말라는 중남미에서 전체 인구 대비 원주민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의 각각 1위(62.5%), 2위(40%)를 차지한다. 뒤이어 페루(15.9%), 파나마(10%), 멕시코(7.1%)가 원주민 인구 비중이 큰 나라에 속한다. 특히 볼리비아 안데스 산악의 포토시 지역에는 원주민 전체의 83.85%가 거주하며 라파즈, 코차밤바와 오루로 주에는 70%를 넘는 원주민이 살고 있다(INE 2012). 마찬가지로 과테말라의 원주민들도 다수 서부고지대에 집중되어 있어 지리적 밀집도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INE 2014). 또한 두 나라 모두 공통된 식민 모국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며 유사한 정치제도와 사회문화를 습득하였으며, 볼리비아 혁명(1952)과 과테말라 내전(1965)뿐만 아니라 이후 군부독재와 좌파집권 등의 역사적 흐름에서 유사한 정치적 위기와 기회를 마주했다.

이렇듯 두 국가는 물리적 조건과 정치적 기회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타난 양상에서 나타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 비교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며, 조직화의 성패 요인에 대한 의미 있는 답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원주민 운동의 성공적 사례로 알려진 볼리비아에서는 원주민 기반 정당 MAS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대선에서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을 선출한 바 있다(Webber 2011). 반면 과테말라에서는 엘키체 마야 원주민으로 태어나 원주민 인권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리고베르타 멘추 툼(Rigoberta Menchú Tum)이 2007년, 2011년 연속 대선후보에 나섰으나 3%의 지지율에 미쳤다.

연구시기는 두 국가에서 원주민 조직화의 시도가 나타났던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다. 볼리비아에서는 1950년대부터 아이마라 원주민들의 종족적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80년 저지대 원주민 집단이 현대의 사회적 운동 조직을 처음으로 만들면서 활성화되었다. 볼리비아에서는 1972년에서 82년에 거친 민주주의 이행 시기 이후, 중남미에서는 최초로 종족정당이 등장하였다. 국가적 폭력에 조직화를 강화하며 1995년에서 2002년 사이에 두 번째 종족정당 물결이 나타나 경쟁이 심화되었다(Van Cott 2005). 이에 반해 과테말라에서는 1944년 자유독재정권 이후 집권한 혁명정부가 친 대중정책과 함께 원주민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원주민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다수인 마야인들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전에서 좌익계릴라와의 연합으로 더욱 급진적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내전과 국가폭력의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과테말라 원주민 조직은 주체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제도화되었다(정이나 2015).

각각의 사례연구에는 인류학지, 종족운동 관련 각종 문헌,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이하 CEPAL)의 보고서, 해당시기 국가별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이하 INE)에서 조사된 인구조사자료, 볼리비아 주요일간지 엘캄비오(El Cambio)와 과테말라의 언론 콘트라포데르(Contrapoder)등의 언론기사, 정치담화 및 담론 등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남미 종족정치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2장에서는 중남미 종족정치 동학을 다루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종족성의 구성주의 논의와 정치행태 연구를 기반으로 대안적 분석틀을 도출한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볼리비아와 과테말라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분석틀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두 국가 행위자의 종족성 구성과정을 통해 정치행태를 예상한 후, 정치행태 결과와 비교하여 종족정치 메커니즘을 확인한다. 4장의 소결에서는 두 국가의 분석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 5장 결론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한계를 살피며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제2장 기존문헌검토 및 대안적 분석틀

종족정치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종족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남미 지역과는 정치적 발전 정도, 종족집단의 사회적 위치 등에서 뚜렷한 구조적 차이를 보여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를 보인다. 중남미 사례 중심의 기존 연구들은 원주민 인구 비중, 지역적 분포도와 같은 물리적 요인이나 지방분권화, 정당등록조건, 원주민을 위한 지정의석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 또는 좌파정당의 쇠퇴, 개방적 정당체제 등의 정치사회적 요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rockett 2005; Van Cott 2005). 위 연구들은 동원 가능한 자원과 제도, 기회 등을 고려하여 중남미 종족정치에 대한 거시구조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공사례에 치우친 서술적이고 해석적인 분석의 한계(Madrid 2012)로 경험적 반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해당 연구들이 역동적인 종족정치의 동학을 포착해내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원주민’이라는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주어진 것으로 바라보는 원초주의(primordialism)적 관점을 바탕으로 원주민 행위자의 정치태도 및 행태를 일반화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주민의 단일 집단(homogenous group)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질적 행위자(heterogeneous actors)의 정치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종족정치 발전의 다양성을 분석하는 대안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1절 기존문헌검토

2.1.1. 자원동원이론

집단의 크기와 밀집도

중남미 종족정치 동학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볼리비아나 에콰도르와 같은 종족정치가 두드러진 발전을 보인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해당 연구들은 원주민의 인구수와 지리적 밀집도를 종족정치 활성화의 기본 요건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은 원주민 집단을 종족 조직화의 자원으로 간주하여, 자원동원의 가능성과 정도에 따라 사회운동의 발생과 활성화를 설명하는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을 바탕으로 한다(Tilly 1978; McCarthy and Zald 1977).

실제로 종족정치가 활발히 일어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전체인구 대비 원주민 인구 비율이 25%를 넘는 선거구가 각각 78.7%와 42.9%의 비율을 차지했고, 이러한 물리적 요인은 종족정당의 높은 득표율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김기현 2012). 종족정치 연구의 대표 학자인 포스너(Posner 2004) 또한 잠비아와 말라위 지역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인구수와 지리적 밀집도가 종족집단의 형성과 권력배양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종족정치가 발전하지 못한 사례를 보면, 중남미 지역의 종족정치 연구에서는 원주민 인구수와 종족정치 발전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실제로 원주민 인구 비중의 중남미 상위 다섯 국가 안에 들어가는 과테말라(39.5%), 페루(15.9%), 멕시코(7.9%)의 종족조직의 성과는 매우 미약하다. 페루는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원주민 인구수(3,913,314명)가 많고, ‘안데스 사다리꼴 지대’(Andean Trapezoid)를 형성하는 아푸리막, 아야쿠초, 쿠스코, 우안카벨리카, 푸노 5개 주에서 50~70%의 원주민 인구비중을 보인다. 그러나 페루에서 종족조직의 정치화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Yashar 2005). 이에 반해

원주민 인구비중이 적은 베네수엘라(2.2%)나 콜롬비아(3.4%)의 종족정당은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다.

기존 종족정치 논의와는 달리 중남미 지역에서 집단의 크기와 지리적 밀집도가 종족정치의 성과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이유는, 원주민 집단의 구성과 종족 갈등의 구도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뤄진 아프리카 지역의 종족적 사회균열(ethnic cleavage)은 아파르(afar), 아칸(akan), 베자(beja)족 등 거주지역과 사용언어 등에 의해 구분된 수 천 개의 세부 집단간의 갈등이다. 이에 비해 중남미 종족정치연구는 350여 개에 이르는 세부 종족집단을 ‘원주민’으로 통칭하는 피지배계층과 백인중심 기득권 세력간의 갈등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레이틴은 집합적 정체성(conglomeratory identity) 집단은 역사적으로 개별적인 요소의 집합으로, 집단의 크기는 크더라도 정치력은 약하다(Laitin 1996)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상대적으로 유사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 대립하는 아프리카 종족들과는 달리, 백인 계층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가 극도로 낮고 내부적 구심력도 약한 중남미 원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남미 사회에서 원주민 집단의 크기를 통해 종족조직의 성패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종족성 원초주의

무엇보다 원주민을 종족조직에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보는 접근방식은 종족집단에 대한 원주민의 원초적 유대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종족성에 대한 원초주의적 입장은 사회집단이 객관적으로 “주어진”(given) 것으로 구체적 범주가 존재하고(Giddens 1991; Connor 1972; Geertz 1963), 이러한 범주에 대한 원초적 유대가 사회 구성원에게 강제성을 발휘한다고 본다(Geertz 1963). 특히 원초적 유대는 민주정치와 시민의식이 약하고, 효율적 행정기관의 발전이 낮은 사회에서 강하게 작용한다고 주장되었다(장용규 2002).

그러나 중남미 사회에서 나타나는 종족성 개념은 사회집단의 실체성과 관련하여 물리주의적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집단의 경계가 인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중남미 사회에서 ‘원주민’이란 식민의 역사 이후 지배계급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고안되어, 지배계급에 배제되는 ‘타자’를 통합하여 지칭한다. 식민 이전에는 아스떼카(Azteca), 마야(Maya), 잉카(Inca) 등 종족을 구분하는 용어만 존재하였으나, 백인-하위주체간의 새로운 사회적 위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종족 간의 차이는 사라졌다(김은중 2008). 이로써 문명과 단절하여 고산 지대에서 거주하는 종족과 일찍이 도시로 이주하여 상당부분 출로화(cholificación)^⑥가 이루어진 종족 등 각기 다른 역사와 관습, 사회질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물학적 근원도 다양한 1,800만 명의 이질적 행위자들이 ‘원주민’으로 통칭된다.

더욱이 식민의 역사를 통해 발생한 원주민 개념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여 년을 거쳐 오면서 원주민과 백인간의 혼혈인 메스티소(mestizo)화와 도시화, 인디오 동화정책 등의 수많은 생물학적, 공간적, 사회적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교육, 경제적 진전, 문화적 변용을 통한 화이트닝(whitening)의 존재는 원주민과 백인 집단의 경계를 유동적이며 상황적인 것으로 만든다(Wade 1997; Horowitz 2000). 종족성의 유동성, 변화가능성은 중남미 국가들에서 실시하는 원주민 인구조사의 지표에서 여실히 나타난다(Kurzban et al. 2001). 지난 50년간 푸에르토리코 인구의 대다수는 흑인, 물라토(mulatto)^⑦에서 백인으로 변화하였으며, 반대로 브라질에서는 자신을 백인이나 흑인으로 지칭하던 사람들 중 다수가 ‘브라운’(brown)으로 자기정체성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로 30년 만에 브라질은 백인에서 비 백인 다수 민족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다(Nobles 2000).

^⑥ 출로(cholo)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교육 등을 통해 주류사회에 편입한 원주민을 일컫는다(Murphy 2007).

^⑦ 물라토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혼혈을 말한다(Wade 1997).

즉, 원주민 집단의 크기와 같은 물리적 변수를 중시한 연구들은 종족성의 불명확성과 유동성을 간과하고 있다. 원주민 집단은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 차이가 존재하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나(Tejera Gaona 1993), 기존의 연구들은 영속적인 종족적 유대를 바탕으로 정체(polity)의 구성원(members)과 도전자(challengers)를 나누어 그 역할과 행동방향을 미리 정해 놓는 식(Tilly 1978) ⑧의 기계적 접근으로 중남미 종족정치의 다양한 변화양상을 포착해내지 못했다.

⑧ 찰스 톨리의 정체모델(Polity Model)은 사회운동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 행위자와 제도 요인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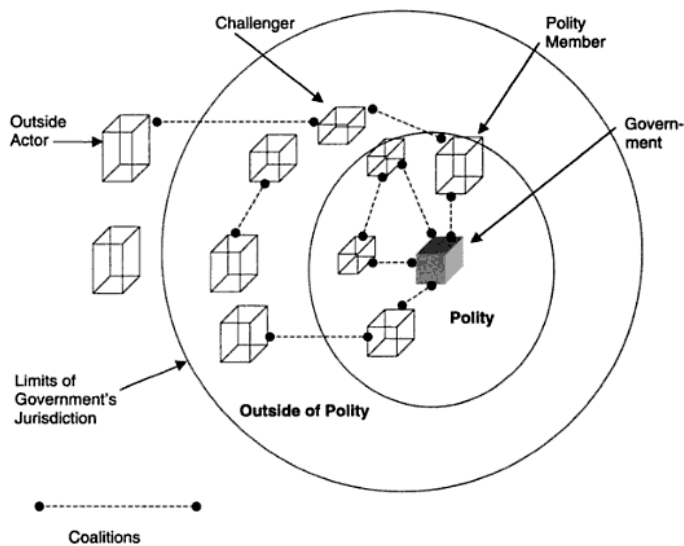


그림2-1 단순 정체모델(The Simple Polity Model)

출처: Tilly et al 2001

그러나 그림 2-1과 같이 행위자는 이미 구성원과 도전자로 그 역할과 행동의 방향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의 규칙이 아닌 판 자체가 변화하는 역동적인 정치상황을 설명하기에 한계를 보인다.

2.1.2. 정치과정이론

제도와 행위자

종족정치 동학의 제도적 요인을 밝히고 있는 연구들은 지방분권화, 정당등록조건의 완화, 원주민을 위한 지정의석할당제, 개방적 정당체제, 좌파정당의 쇠퇴 등을 지적한다(Brockett 2005; Van Cott 2005). 이러한 거시적 접근은 종족정치가 발전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적 조건들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중남미 종족정치의 대표학자인 야샤르(Yashar), 반 코트(Van Cott) 등의 연구는 제도적 요인은 물론 행위자의 동기와 같은 미시적 변수를 고려하여 중남미 종족정치 다양성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있다.

야샤르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비교연구를 통해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고, 제도화 수준이 낮으며 후원주의 경향을 보이는 중남미 정당정치 상황에 적합한 구조적 변수를 도출해내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종족 운동의 동기, 가능성, 기회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 자치에 도전하는 시민권 체제, 초 공동체적 네트워크, 정치적 연합 공간이 종족 균열의 정치화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Yashar 2005). 반 코트는 물리적·제도적·정치사회적 변수를 포괄하여 종족정당의 형성과 성공의 결정요인을 제시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분권화, 지지정당에 대한 투표 접근권, 소수인종을 위한 의석할당제와 같은 개방적 제도 요인과 더불어 정치세력의 진출입이 용이하여 변화가능성이 높은 개방적인 정당체제, 또한 좌파의 하락이 종족정당의 형성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는 정치제도와 정당체제 내의 권력구성형태 외에도 종족운동이 동원 가능한 자원과 행위자의 전략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결합하고 있다(Van Cott 2005).

이와 같은 접근은 정치적 기회(political opportunities)의 확장, 동원 구조(mobilizing structure)의 이용가능성, 인식적 해방(cognitive

liberation)을 고려하는 정치과정모델(political process model)과 입장을 같이한다(McAdam et al. 1988). 위 이론들은 거시 구조적 요인과 함께 미시적 정치과정을 연결시킴으로써, 지나치게 구조 중심으로 참여자의 개인적인 동기를 간과했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했다. 이에 유사한 구조적 요인 하에 중남미 종족정치의 다양성에 대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례에 대한 설명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명한 경험적 반례들이 존재한다. 야샤르의 논의는 시민권 체제, 초공동체적 네트워크, 정치적 연합 공간이 주어진 과테말라에서 종족정치가 부재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야샤르가 제시한 변수 외에도 국제적 변수가 종족정치 활동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는데, 페루 원주민들은 국가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았지만 초 국가적 네트워킹을 다른 국가나 국제적 NGO들과 합쳐 힘을 발휘하고 있다(Greene 2006). 또한 반코트의 논의에서도 정당등록조건을 완화시키지 않고 좌파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한 볼리비아 사례가 존재한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오히려 좌파세력의 지지를 통해 원주민 정당이 성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들은 한정적인 사례에 부합하는 요인들을 나열하는 해석적이며 서술적인 분석에 그친다.

종족성 도구주의

정치과정이론을 바탕으로 한 종족정치 연구들은 미시적 변수로 초점을 낮춰 원주민들의 정치참여 동기를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원주민의 정체성을 영속적이고 원초적인 것으로 보는 원초주의에서 벗어나 정체성이 상황적으로 규정되고 전략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여기는 도구주의(instrumentalism) 혹은 상황주의(situationism)(Anderson 1983; Brubaker 1996; Eriksen 1993; Nutini 1997)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구주의는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무기로써 공동체나

집단의식을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Barth 1998)에서 한계를 보인다. 도구주의는 종속성이 해당 종족집단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 발명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Anderson 1983). 하지만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종족의 경계가 조작되는 방식을 살피는 과정에서(Cohen 1978), 이미 내재적 본질로서 존재하는 공동체 의식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동원되고 강조되는가에 대한 시각이 드러난다(Geertz 1963).

야샤르와 반 코트의 논의는 도구주의적 접근의 한계로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적 행위자의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즉, 원주민이라는 라벨링(labeling)에 의해 원주민 행위자들이 지닌 다중적 정체성을 간과하고, 행위자의 다양한 정치 해석과정과 경쟁적인 선택 과정을 분석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로써 원주민의 정치행태를 일반화하고, 자치권 보장이나 네트워크의 구축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원주민들이 종족집단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 중남미 국가 사례에서 원주민들이 종족정치에 참여하는 도전자 역할을 선택하지 않고, 정부 프로그램에 순응하는 기존 정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혹은 또 다른 사회균열을 축으로 새로운 집단을 구성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1968년 페루에서 시행된 벨라스코 군사 정부의 토지개혁은 이러한 현상을 잘 드러낸다. 벨라스코 정부는 원주민 공동체 토지를 입법화했고, 농민공동체에 대해 자치권을 부여했다. 이에 사회 안팎으로 정치적 자치권을 얻은 원주민들에게 종족조직화의 기대가 커져갔지만, 사실상 원주민 동맹이나 조직에 대한 일말의 시도조차 나타나지 않았다(Cleaves and Scurrah 1980). 계급적 성격으로 조직된 ‘농민 공동체’가 원주민 집단을 빠짐없이 포함해 이미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집단 정체성 조직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위 논의를 종합하면 집단의식을 전제하고 행위자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통해, 이질적 원주민 행위자의 정치적 해석과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 종족성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종족성을 행위주체의 사회적 행동들의 구성물로 보는 입장이다(Young 1979). 이에 구성주의 이론은 종족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process)에 주목한다(박종일 2006). 종족성 구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는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차이(Chong and Kim 2006), 정치적 권력의 분배, 정부의 차별적 사회정책(Cornell and Hartman 2006), 국가 폭력(Chandra 2007), 사회적 자본의 가능성, 언어, 종교와 같은 문화적 풍습 차이(Cornell and Hartmann 2006) 등이 있다. 특히 최근의 구성주의 연구들은 종족적 균열이 폭력이나 갈등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 기존 입장을 뒤집어 다양한 정치경제적 산물이 종족성 재구성에 미치는 “역방향 인과관계”(reverse casual effects, Chandra 2007)에 주목하고 있다. 이로써 종족성은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종족적 정체성은 원주민의 다중적 정체성(multiple identities) 중의 하나다. 따라서 다중의 집단 정체성 중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부각될 수 있는 유연한(flexible) 개념으로 간주된다. 중남미 사회에서 종족정체성과 경쟁적인 집단정체성의 대표적인 예는 계급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종족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는 반드시 계급 개념과 함께 논의된다(Urciouli 1996). 집단 정체성은 차이의 개념이며 특정 집단에의 귀속을 일컬으나(Laitin 1996), 원주민의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된 오늘날 가난한 농민, 노동자는 중남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원주민과 공통의 집단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특정 집단이 소위 ‘원주민’이라는 프레이밍으로 동원되고 종족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는 단순히 자치공간 확보와 같은 물리적·제도적 조건뿐만 아니라 종족정체성의 중요도(salience)가 증가할

요인이 필요하다. 계급적 정체성, 종족적 정체성 등 다중적 정체성 중에 특정 정체성의 중요도 증가와 그로 인한 정치적 연대의 과정은 자연적이지 않으며 지극히 정치적인 과정이다. 행위자에 따라 종족성 중요도가 차별적이라는 인식은 원주민을 다양한 정치적 선호와 욕구를 지닌 이질적 집단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토대로 종족정치에서 행위자의 정치적 상호작용과정을 분석해 중남미 종족정치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자원 및 분석틀

앞선 논의에서는 중남미 종족정치의 성패를 분석하는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고찰하며,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종족 의식이 차별적으로 구성된 원주민 행위자의 정치적 해석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종족성에 대한 구성주의 논의를 원주민 정치행태 분석에 연결하는 이론적 자원들을 찾아보고 과정추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대안적 분석틀을 구성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이질적 원주민의 정치적 해석과정에 따라 거시구조적 변수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가설 하에 행위자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분석의 중심에 둔다. 종족정치 동학에 대한 행위자중심 분석은 원주민 행위자의 종족의식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 차별적으로 구성되고, 종족 정체성의 중요도에 따라 원주민의 정치행태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2.1.1. 종족성의 정치화

종족 정체성의 구성과정에서 형성된 원주민 집단의 차별적 종족의식을 전제로, 유사한 거시구조적 조건 하에서도 이질적 원주민 행위자의 정치적

해석과정에 따라 종족정치에 대한 지지나 참여가 달라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족성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정치행태 분석에 연결한 집단행동 프레임 연구에 주목한다. 정치혁신가들이 프레이밍을 통해 종족성에 기댄 정치적 연대와 협력을 호소하는 과정을 검토하여 외생변수와 프레이밍 변수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프레이밍 과정에서 간과된 행위자의 행위주체성을 고려해, 차별적 종족의식을 지닌 행위자의 정치해석과정에 따라 프레이밍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그 결과 행위자의 정치행태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새로운 분석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외생사건과 프레이밍

정치적 혁신가의 프레이밍이 정체성 변화와 종족조직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프레임(frame)에 관한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레임은 심리학(Bateson 1972; Tversky and Kahneman 1981)이나 미디어 연구(Pan and Kosicki 1993; Scheufele 1999), 담론분석(Tannen 1993; Van Dijk 1977) 등 오늘날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 중 정치학적 관점에서는(Schön and Rein 1994; Triandafyllidou and Fotiou 1998) 프레임을 사회운동이나 집단행동에 연결 지어 분석하고 있어 본 연구에 많은 함의를 준다. 특히 집단행동 프레임(collective action frames)연구에서 의미나 아이디어는 구조적 변인이나 사건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회운동가들의 역할은 이를 단지 전달할 뿐이라고 보는 관점을 거부한다. 오히려 활동가(activist)의 역할에 의해 아이디어가 생성되고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한다(Gamson et al 1982; Benford and Snow 2000).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프레임은 정치상황에 대한 인식(perception)과 쟁점 선호도(preference ordering)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중 레이틴의 티핑모델(tipping model)은 행위자의 사회적 정체성 이동에 따른 집단행동 결정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해 볼만 하다. 티핑이란 작은 일에서 시작된 엄청난 변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고려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토마스 셸링(Thomas Schelling)이 발전시킨 이 개념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정치행태를 결정하는데 특정 사회적 네트워크(인종, 계층, 종교, 지역 등)의 소속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1978). 레이틴은 정체성 또한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정체성 이동을 “경사(tip)” 혹은 “폭포(cascade)”라고 불렀다.

레이틴의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들의 정체성이 균형 상태에 있는 안정된 사회에서 문화적 혁신가들(cultural entrepreneur)은 신념, 원칙, 통제 등을 통해 현 상태에 의미를 부여해 초점(focal point) 상태를 만들고, 집단을 대표하는 권력과 합법성을 확장시켜 나간다. 이 와중에 외생사건(exogenous events)이 발생하면, 새로운 문화적 혁신가가 나타나 새로운 균형 상태로 밀어붙이고자 시도하고, 안정시기에 권력을 갖고 있던 정치적 혁신가는 회귀적 움직임을 보인다(Laitin 1996). 즉 외생사건에 의해 다양한 사회균열 가능성이 발생하고, 이때 다양한 집단의 정치 엘리트들이 각기 다양한 정체성을 주입시키며 대중을 사회운동이나 정치활동에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레이틴의 논의는 외생사건과 프레이밍의 역할을 통해 정체성이 어떻게 정치적 연대와 협력의 초점이 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신에게 적합한 라벨(label)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데(Laitin 1996), 이는 행위자들이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chattschneider 1975). 다시 말해, 사람들은 중첩적인 정체성이 내제하고 있는 복잡다단한 사회적 대립과 긴장을 모두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문화적 혁신가의 프레이밍은 몇 가지 선택지를 가시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프레이밍의

주체와 의도를 파악해 정체성 변화의 방향과 사회운동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혁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이밍이 어떻게 공동체의 대다수 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이한 정치혁신가들간의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 행위자의 정치적 연대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종족적 활동가들은 인종적 뿌리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종적 유사성에 호소하거나, 원주민의 정치참여와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주장하며 정치사회적 갈등을 강조할 것이다. 또 다른 활동가들은 계급적 정체성이나 시민적, 종교적 정체성을 부각시키고자 동시에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레이틴은 티핑모델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으며, 수많은 시행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체성 작업 과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위기의 시기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합리적 계산을 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Laitin 1996).

티핑모델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선택이 이루어지는 전환적 순간(turning points)은 존재한다. 단지 반복이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에는 전환적 순간에서의 선택 메커니즘은 여전히 나타나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모델을 벗어나 '반복'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끌어오면서, 모델 안에서 변화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자체의 설명력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위기가 사람들에게 합리적 사고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설명은 합리적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을 제시해 줄 뿐이며 선택의 방향성을 밝혀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더욱이 정체성 형성과 정치행태 동원에 있어 엘리트나 정치적 혁신가의 역할에 주목한다면, 행위자는 전략적 이해에 의해 발명된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며 기존 종족정치 연구들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종합해보면 티핑모델은 정체성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미시적 변인을 밝혀 집단행동을 이끄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외부적 변인이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만 제시할 뿐, 변인에 대한 행위자의 반응이 누락돼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 변화의 원인을 균형적으로 밝히고 있다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self-categorization) 개념을 적용하여, 행위자의 '행위주체성(agency)'을 고려한 균형적인 분석을 통해 대중의 정치해석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자기범주화, self-categorization)이란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개념에서 발전되어(Abrams 1990; Bergami and Bagozzi 2000) 집단행동 인식의 기반으로써 사회적 범주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Turner 1985; Turner et al. 1987).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과 타인의 객관화를 바탕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의 동일성과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 스스로의 정체성 변형을 도모한다.

이때 객관화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화에 기반 하는 것을 말한다(Hogg and Terry 2000). 비교는 집단 정체성 형성의 기본 과정으로(Laitin 1996), 주체의 능동적 행위가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 특정 사회적 정체성에 중요도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의 과정은 기계적인 순응과 적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 인식 맥락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돼 버리는 상황에 거부감을 느껴, 오히려 자신에게 보다 이롭고 적합한 정체성이 중요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 기준을 바꾸기도 한다(Turner et al 1987; Hogg and Mullin 1999).

즉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타자와의 비교와 행위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종족정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행위주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 과정은 조직적 맥락(organizational context)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행위자들이 정체성 기준을 자체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활동이 저조하거나 방향이 맞지 않던 조직들은 행위자들의 기준에 맞춰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다(Hogg and Terry 2000). 이에 따라 유사한 외생사건과 정치적 혁신가의 발생에도 나라마다 원주민들의 행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종족정치가 상이하게 나타난 이유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진다.

정치적 혁신가들의 프레이밍이 생산자의 상품판매과정(Laitin 1996)이라면, 자기범주화과정은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 사이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혁신가들은 프레이밍 전략을 통해 특정 정체성에 기대 정치적 협력을 호소한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곧바로 소비자의 구매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한정된 재화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듯이, 행위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치적 연대를 택한다. 행위자들의 종족적 집단 의식에 대한 정치적 필요는 집단의 각기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하에서 축적된 경험적 판단(judgmental heuristics)에 기반한다.

원주민의 집단조건과 경험적 판단

정체성 위기의 국면에 다수의 정치적 혁신가의 프레이밍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원주민 행위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선택지를 고를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남미 사회에서 원주민들의 제한적 사회 서비스 접근권, 낮은 소득, 높은 문맹률 등을 고려할 때, 원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고 불균형적이다. 따라서 원주민들이 정치혁신가의 전략과 조직의 특성, 제도적 상황 등의 모든 조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명확하게 이해해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원주민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에 의한 정치혁신가의 전략을 판단하고 추측한다. 이처럼 행위자들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직관적 판단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하고 즉흥적 추론을 통해 가능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Tversky and Kahneman 1973).

중남미 원주민 집단은 350여 개 이상의 세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집단은 각기 다른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갖고 있다. 집단의 크기와 거주지역은 물론 성별, 연령, 직업 구성, 종족간 결혼정책, 사회경제적 근대화 정도(Chong and Kim 2006), 문화적 풍습, 전통질서의 보존도, 국가적 혹은 지역적 폭력의 피해, 조직화, 사회적 자본의 동원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집단과 상황을 둘러싼 이러한 차이는 집단이 종족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에도 차이를 만들어 낸다(Cornell and Hartman 2006).

이러한 이질적 조건은 외생사건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원주민 집단 중 일부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도시화나 백인과의 결혼으로 메스티소(mestizo)화를 겪으면, 원주민 집단 내에도 경제적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제적 조치가 내려지면 종족공동체적 집단의식과 유대감이 감소할 수 있다. 즉, 행위자의 종족성에 대한 의식 혹은 종족적 유대감은 ‘원주민’이라는 공통된 사회적 라벨 하에서도 내부조건에 따른 외생사건의 영향력에 의해 차별적으로 구성된다.

그 결과, 종족적 정체성을 선택한 행위자는 자신을 ‘원주민’ 카테고리에 넣고 원주민조직의 종족성 운동에 참여하며, 계급적 정체성을 선택한 행위자는 자신을 ‘농민’ 혹은 ‘노동자’ 카테고리에 넣고 농민조합이나 노동자조합과 같은 경제조직에 참여하여 계급이익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 범주화 과정은 외생사건과 정치적 혁신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자의 집단 정체성은 고정적이지 않고 조직에 대한 행위자의 연대와 이탈도 반복된다. 위와 같은 논리로 정치적 혁신가들의 프레이밍이 작동하는 과정 또한

차별적 종족의식을 바탕으로 행위자의 정치적 해석과정에 따라 정치적 협력과 연대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 절에서는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2.1.2. 대안적 분석틀: 행위자의 정치해석 모델

행위자의 정치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한 분석틀은 이질적 원주민 행위자의 행위주체성을 중심으로, 중남미 원주민의 정치화(politicization)와 종족정치(ethnic politics)의 발전을 분석하려는 대안적인 접근의 일환이다. 따라서 본 모델은 집단정체성에 대한 원초주의적 관점을 거부하고, ‘원주민’을 다중적인 집단 정체성 중에 행위자의 개별적 중요도에 따라 부각될 수 있는 유연한 개념(Kurzban et al. 2001)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종족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행위자에 따라 종족정체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차별적이라고 간주한다.

분석틀의 종속변수는 원주민의 정치행태이며, 외생사건과 정치적 혁신가의 프레이밍이 독립변수로 제시된다(Laitin 1996).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연결하는 매개변수는 종족정체성의 중요도 인식이다. 종족정체성의 중요도 인식은 외생사건과 정치엘리트의 프레이밍에 의해 결정되며, 다중적 정체성의 경쟁 상황에서 행위자의 선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집단의 내부 조건에 따른 행위자의 경험적 판단 단계를 조절변수로 추가한다. 즉, 집단의 내부조건에 따라 외생사건과 프레이밍의 영향력이 달라지며, 이 과정을 통해 행위자에게 차별적으로 인식된 종족성의 중요도는 정치행태 양상을 결정하는 경험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위 모델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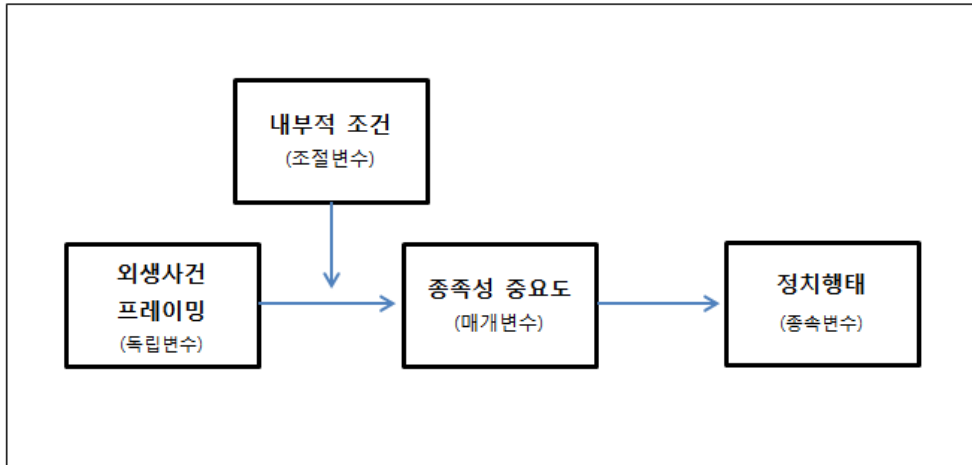


그림2-2 행위자의 정치해석 모델

본 모델은 정체성의 균형 상태(Laitin 1996)에서 시작한다. 다중적인 정체성이 선택의 필요 없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정체성 균형 시기이며, **외생사건**이 발생하면 안정의 상태가 깨지게 된다. 이때 외생사건의 성격과 행위자가 처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 각각의 정체성에 가해지는 위협의 정도가 다르게 가해지고, 행위자들은 자신이 위협받은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즉, 외생사건이 발생하면 행위자들은 자신이 처한 개별적 **내부조건**에 따라 균형 상태에 있던 정체성들의 중요도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일 조건에 있는 집단의 행위자별로 종족정체성의 중요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종족 정체성의 중요도가 증가된 행위자 중 일부는 새로운 정치적 혁신가가 되어 원주민 사회운동이나 정치활동의 지도층을 이룬다. 정치적 혁신가는 새로운 갈등 국면에서 정치적 권력과 입지의 확보를 위하여 종족적 정체성을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한다. 종족적 집단의식과 유대감을 촉발시켜 조직적 활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고 원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프레이밍**을 시도한다. 따라서 정치혁신가의 프레이밍 또한 종족 정체성의 중요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행위자들은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자신의 다중적 정체성과 관련된

사회의 모든 대립과 갈등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라벨(label)을 찾지 못해 종종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Laitin 1996). 이러한 정체성 위기 국면에 정치적 혁신가들이 등장하고, 행위자들은 자신의 정체성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들이 만든 선택지에 의존하게 된다. 정치적 혁신가들은 해당 정체성에 처한 위협이나 갈등의 가시성, 강도, 방향성 등을 설정하고 이를 행위자들에게 홍보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회적 환경 하에서도 정치적 혁신가들의 의식적이고 정치적인 전략으로 각기 다른 이슈나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정치혁신가가 경쟁할 때, 행위자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놓인다. 이때 행위자의 **경험적 판단** 과정은 집단 내부 조건에 따라 외생사건과 프레이밍의 영향력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다중 정체성 중의 특정 정체성에 대한 정치적 선택을 돕는다. 원주민이라는 동일한 범주 안에서도 각기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혹은 물리적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생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외부적 위협이나 내부적 압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자신이 처한 조건에 상황적으로 유리한 프레이밍에 동조하고 이는 **정치행태**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종족성의 중요도 증감에 따라 종족조직에 대한 정치적 협력 양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이때 종족성의 중요도는 집단의 조건에 따른 외생사건과 프레이밍의 방향으로 관찰하며, 정치행태는 투표양상을 통해 분석하나, 종족정당 형성에 이르지 못한 사례에서는 종족조직에 대한 가입 여부로 정치행태를 파악한다.

가설1. 원주민의 종족성 중요도가 증가하면 종족투표가 증가한다.

본 모델은 기본적으로 사회심리학적 접근(socio-psychological approach)을 바탕으로 정치행태를 설명한다. 사회적 균열이론에 따르면 특정 사회 네트워크(인종, 계층, 종교, 지역 등)의 소속은 유권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Lazarsfeld et al. 1968), 사회적 정체성이 투표자의 정치적

이해를 결정한다(Lipset and Rokkan 1967). 투표연구의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분석은 이와 같은 시각을 따른다. 정당에 대한 귀속감이나 쟁점, 후보자에 대한 거리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은 합리적 계산에 앞서 인지지도(cognitive map)의 역할을 하며, 복잡다단한 갈등과 쟁점 가운데 판단의 지름길(shortcut)을 만들어준다(Lazarsfeld et al. 1968).

이에 종족투표(ethnic voting)는 종족그룹에 속한 성원이 한 정당에 대해 강한 친밀감을 나타내고 종족적 기준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Wolfinger 1965). 종족 지도자들이 종족적 선거구민을 획득하면,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Horowitz 1985)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는 종족성과 같은 사회적 정체성이 정치행태를 결정하는 경험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따르나, 사회적으로 동일한 범주로 규정되는 집단 내에서도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중요도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따라서 종족적 선거구민 내에도 종족의식이 차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앞선 분석을 고려해, ‘종족성 중요도 인식’과 같은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사용한다. ‘원주민’이라는 포괄적 범주에서 종족성 중요도가 증가한 집단과 감소한 집단으로 나누어, 종족성 중요도가 높은 집단에서 종족성에 기대 정치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2. 원주민의 종족성 중요도가 감소하면, 투표유동성이 증가한다.

가설1에서 언급하였듯이, 종족성과 그로 인한 종족적 유대감, 정당일체감 등은 종족 집단에 대한 협조를 강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정치적 연대를 이끌 만큼 강한 종족적 집단의식을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처한 원주민 모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중남미 사회의 원주민과 같이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한 방향의 정치적 선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다(Olson 2009). 내부조건에 대한 외생사건의 위협이 비종족적인

분야(종교, 경제, 문화 등)에서 나타난 경우, 비종족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만큼 상대적으로 원주민의 종족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낮아진다. 낮은 종족의식 또한 일종의 판단지표로 기능한다. 종족적 의제는 원주민 구성원의 개별적 요구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게 되고, 종족적 집단의식과 같은 심리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원주민과 종족정당간의 정치적 연대는 약해지며, 선거마다 지지정당을 교체하는 투표유동성(electoral volatility)은 증가한다.

종족성에 대한 중요도가 낮은 원주민 행위자의 경우, 비원주민 행위자의 정치행태 분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종족조직에 대한 정치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종족성에 기댄 정서적 유대가 아닌 또 다른 유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당이나 조직의 선점이슈에 대한 평가나, 계급투표 등 종족투표 경향을 벗어난 다양한 정치협력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남미 사회에서 행위자의 다중적 정체성은 크게 종족과 계급으로 나뉘는 점을 고려해볼 때, 종족적 정체성의 감소는 빈자나 농민과 같은 계급적 정체성의 상대적으로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계급 이슈의 포함여부에 따라 정당이나 조직의 정치적 연대가 결정된다. 조직이나 정당의 선점이슈에 계급이슈는 배제된 채 종족 이슈만 포함된다면 행위자의 가입, 혹은 투표행위는 감소한다. 반면 종족성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도 조직의 의제에 계급이슈가 포함되면 종족조직에 대한 가입이나 정당에 대한 투표율은 증가할 것이다.

국가비교연구

다음 장에서는 볼리비아와 과테말라 종족정치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틀과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할 것이다. 각국 원주민 행위자의 정치해석에 주목하여 볼리비아 종족정치가 성공에 이르게 된 역사적 내러티브(narrative)를 인과적 흐름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분석틀에 따라 예측된 결과와 실제 경험적 사례의

결과를 비교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집단정체성연구의 구성주의 입장에 따라 집단내부적 조건에 따른 외생사건의 개별적 반응을 통해 행위자의 경험적 판단 과정을 관찰한다. 다음으로 프레이밍 이론과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 이론을 바탕으로 경험적 판단에 따라 정치혁신가의 프레이밍에서 나타난 선점이슈를 판단하고 정치행태를 예측한다. 분석틀을 통해 예측한 원주민 행위자의 정치행태 양상을 두 국가에서 실제로 나타난 원주민 조직의 수와 크기, 종족정당의 선거결과 등의 정치행태 양상과 비교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이다.

특히 유사한 거시구조적 조건 하에서 이질적 행위자의 정치해석과정이 정치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기간 내에 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건을 선별하여 통시적·공시적 분석을 시도한다. 원주민 조직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외생사건은 기존 종족연구의 입장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조합주의 정책 및 제도의 주입, 국가의 물리적 탄압, 정치 및 경제 위기로 선별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볼리비아 사례는 1953년 농민조합모델의 도입, 1973년 군부의 대량학살, 1980년대 경제위기의 세 시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과테말라 사례는 1944년부터 1954년까지의 노동조합 정책, 1978년에서 1982년까지의 군부 대량학살, 1970년대 농업위기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제3장 볼리비아 사례분석

이 장에서는 본 논의에서 제시한 정체성 중심 정치행태 분석틀에 따라 볼리비아 종족정치의 동학을 살펴본다. 볼리비아는 원주민의 사회운동이나 정치활동이 실질적 영향력을 끼치며, 종족정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불리고 있다. 오늘날 종족 정당은 볼리비아 다수 원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원주민 운동은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김기현 2012). 이에 따라 볼리비아 원주민은 볼리비아 국가 정책 전반에 있어서 소외됐던 과거와 달리, 국가 정치의 중요한 결정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Rivera Cusicanqui 1987).

볼리비아의 종족조직화 움직임은 1952년 볼리비아 혁명 이후 처음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핵심적 종족 조직이 두각을 나타내고 종족 정당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1998년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행정부의 수반이 된 에보 모랄레스(Juan Evo Morales Ayma)의 등장과 원주민 기반(indigenous-based) 정당인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 이하 MAS)의 성장은 중남미 원주민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알리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Postero 2007). 안데스 고산지대 원주민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는 MAS을 창당하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MAS는 원주민 운동, 코카 재배 농민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 엘알토(El Alto) 주민을 중심으로 한 도시빈민 운동 그리고 광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이 하나의 정치정당을 이루어 집권에 성공하였다(Stefanoni 2010). 에보 모랄레스는 2005년 대선, 2009년 대선에 이어 2014년 10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60.5%의 지지율을 받으며 대통령 3연임에 성공하였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볼리비아 원주민의 성공적인 정치세력화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종족조직이나 종족정당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전술을

구사했고, 이에 대해 원주민들의 반응과 선택이 어떠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분석틀에 따라 원주민 집단의 내부조건, 사건별 원주민의 종족성 중요도 변화 및 정치행태를 분석한다.

제1절 볼리비아 원주민의 내부조건

원주민의 인구 구성과 주거

볼리비아의 원주민 인구비중은 시기와 기준에 따라 40~80% 등 큰 차이를 보이지만, 중남미 국가 중에서 원주민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Madrid 2005). 1976년과 1988년 볼리비아에서 시행한 인구조사의 기준은 사용언어로, 2001년 원주민 인구는 49.95%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 인구조사의 공식기준이 자기정체성(Auto-identificación)으로 변경되었고, 2012년 인구조사에서 자기정체성 기준으로 볼리비아 15세 이상 인구 중 원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2.5%에 달한다.

원주민의 거주지역은 지역별로 집중되어 있으며, 2012년 볼리비아 통계청 자료 기준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지역은 포토시(Potosí)로 83.85%에 이른다. 이 밖에도 안데스(Andes) 산악 지역의 라파스(La Paz), 오루로(Oruro) 주가 각각 77.46%, 73.90%이며, 융가스(Yungas) 지역의 코차밤바(Cochabamba)와 추키사카(Chuquisaca) 주가 74.36%, 65.57%로 지역 전체 인구 대비 원주민 인구가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 원주민 거주지역이 과거 주로 농촌 지역에 밀집되었던 것에 반해, 오늘날에는 대도시 주변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수도와 그 주변인 라파스, 코차밤바, 엘알토 등 안데스 지역에 상당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반면 베니(Beni) 주의 아마존 지역과 차코(Chaco) 지역의 산타크루스(Santa Cruz)나 타리하(Tarija) 주의 거주 인구는 상대적으로

낮다(INE 2012, 김기현 2012).

지역	원주민 인구 비중
포토시(Potosí)	83.85
라파즈(La Paz)	77.46
코차밤바(Cochabamba)	74.36
오루로(Oruro)	73.90
추키사카(Chuquisaca)	65.57
산타크루즈(Santa Cruz)	37.49
베니(Beni)	32.75
타리하(Tarija)	19.69
판도(Pando)	16.24
전 지역 평균	62.5

표3-1 볼리비아 주요 지역별 원주민 인구비중

출처: INE 2012

원주민 집단의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37개의 종족집단이 존재하며, 케추아(Quechua)족과 아이마라(Aymara)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각각 전체 원주민의 20.66%, 19.22%에 달한다. 케추아족은 안데스지역과 융가스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며, 아이마라족은 2000여년 전 볼리비아의 서부에 정착하여 오늘날 수도가 있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외에도 차코나 아마존과 같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치키타노(Chiquitano)가 1.42%, 과라니(Guaraní)가 0.95%, 모헤뇨(Mojeño) 종족이 0.5%로 전체 비중의 2%를 넘지 못한다(INE 2012).

종족	인구비중(인구수)
케추아(Quechua)	20.66(1,281,116)
아이마라(Aymara)	19.22(1,191,352)
치키타노(Chiquitano)	1.42(87,885)
과라니(Guaraní)	0.95(58,990)
모헤뇨(Mojeño)	0.50(31,078)

표3-2 볼리비아 원주민 구성

출처: INE 2012

2개의 볼리비아

원주민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지만 원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볼리비아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스페인 공화국”(República de Españoles)과 “원주민 공화국”(República de Indios)이라는 표현(Levaggi 2001)은 국가발전의 혜택을 받는 소수 백인들과 달리 국가정책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된 대다수 원주민들의 사회적 위치를 명백히 보여준다(Toranzo 2006; 김달관 2014). 백인은 원주민을 통제하고 착취했으며, 원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주체였다.

오늘날 볼리비아는 원주민집단의 권리신장을 위해 더욱 수용적인 정치시스템을 만들고, 폭력을 감소시켜왔으나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10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icator, HDI)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원주민은 비원주민에 비해 빈곤율과 극빈율이 높으며, 교육, 의료공급, 주거, 고용의 질 등에서 서비스 접근율이 낮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고, 교육에 의한 기대성취도 낮아 세대에 걸쳐 사회적 불평등이 세습되고 있다(Throp et al. 2010). 이렇듯 볼리비아 사회의 수평적 불평등(horizontal inequality)^⑨은

^⑨ 수평적 불평등은 동일한 여건임에도 문화적으로 소속된 집단에 따라 차별적 대

국가제도의 작동방식과 사람들의 태도에 계속 현존하며 종족적 균열의 오랜 역사를 보여준다.

	비원주민	원주민	비율
극빈율	12.8	34.4	0.37
빈곤율	28.7	31.3	0.92

표3-3 볼리비아 원주민 빈곤율

출처: Barrón 2008

제2절 시기별 원주민의 정치행태 분석

3.2.1. 식민시기-차코전쟁(1825-1935)

1548년 말 스페인이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 식민지 정부를 세운 뒤 1825년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의 이름을 딴 공화국을 세우며 진정한 독립국가로 출발하기까지, 원주민들은 백인 지배세력과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차별 받아왔다(김달관 2013). 식민정부는 식민사회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원주민 세력의 단결과 확장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고, 원주민 행위자들을 문명화시키거나 문명화되거나 사라져야 할 야만인이라는 프레임 하에 종족적 정체성을 위협받았다.

식민시기 종족간 정치적, 경제적 자원의 자명한 차이로 이러한 프레임에 경쟁할만한 영향력 있는 종족적 정치적 혁신가는 등장하지 않았다. 볼리비아 원주민들은 “(수혜)받는 시민권자”(Ciudadanía

우가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투표권, 임금 조건 등 경제,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며, 사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Stewart 2008; Mancini 2005).

Recibida)에 대립하는 개념인 “생산하는 시민권자”(Ciudadanía Producida)의 틀을 강요 받았다. 생산하는 시민권자는 원주민이나 출로를 뜻하며, 시골에서 태어나 자원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고 사회의 하층을 구성하는 이들을 뜻한다. 이에 반해 받는 시민권자는 백인이나 메스티소를 뜻하며 도시에서 태어나 자원의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고 사회의 중상층을 구성하는 이들을 칭한다(Ríos 2007). 사회의 뚜렷한 이분법은 원주민의 역할과 행동을 수동적인 위치에 고정시켜놓았다.

독립 이후 볼리비아는 그란차코 지역의 소유권을 놓고 1932년에서 1935년 사이 파라과이와 전쟁을 벌였다(Zook and Ynsfran 1962). 차코전쟁(Guerra del Chaco)은 전근대적 국가체제에 대한 각성을 불러왔고, 이를 통해 전통적인 국가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급진적 성향이 발생하였다(Klein 2011). 대공황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는 주석광산 과두세력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며, 광부들은 물론 원주민, 농민들 또한 정부정책 반대시위에 나섰다(Guzmán 1998). 이 시기 정치세력들은 ‘혁명적’(Revolucionaria) 이념을 내세웠고 민족혁명운동당(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이하 MNR)과 좌파혁명당(Partido de Izquierda Revolucionaria, 이하 PIR), 혁명노동자당(Partido Obrero Revolucionario, POR)이 등장했다. 군부에서도 진보세력(Razón de Patria: RADEPA)이 나타나 “차코세대”(Generaciones de Chaco)로 불렸다. 차코 전쟁 이후 국가의 전근대적 체제의 모순을 깨달은 급진세력들은 1952년에 발생하는 국민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Klein 1968). 이 시기 원주민들은 좌파세력의 프레이밍으로 동원되었고, 원주민 종족성에 대한 독단적 사회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3.2.2. 국가후원 농민조합모델(1953)

MNR 정당의 사회개혁

원주민의 사회운동이 발생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국가의 농민조합 모델과정에서 나타난다. 농민조합모델은 원주민을 농민조합 하에 조직화하려는 시도로, 볼리비아 혁명 이후 정권을 획득한 MNR이 내세운 일련의 사회개혁정책 중 하나였다. 과거 MNR 정당은 구알베르토 빌야로엘(Gualberto Villarroel)의 민-군 합작정권에 참여하였으나 과두적 광산업주들 및 PIR에 의해 1946년에 물러났다. 1949년 짧은 내전을 일으켰으나 패배하였고, 1951년 선거에서 승리하며 재등장하였다. 그러나 반대파들의 부정선거 선언으로 취임이 거부되었다. 결국 MNR 정당은 1952년 볼리비아 혁명을 이끌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1952년 발생한 볼리비아혁명은 20세기 중남미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 하나로 볼리비아가 국민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MNR 정당은 맑스주의에 반하여 볼리비아의 현실에 적합한 민족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며, 볼리비아 국민혁명을 성취하였다.

혁명 이후 MNR 정당은 대중주의 노선을 띠며 포괄적인 정치조직으로 중산층, 노동자, 농부를 자신의 주된 지지계층으로 포섭하고자 하였다. MNR 정당은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Victor Paz Estenssoro)와 헤르난 실레스(Hernan Siles)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농촌교육, 주석광산 국유화와 같은 전근대 사회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혁명 중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 중 하나는, ‘2개의 볼리비아’에서 철저히 외면 받아온 원주민들을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보편적 투표권 도입을 통해 원주민들은 처음으로 투표할 권리를 갖게 되었고, 전체 유권자의 65%이상을 차지하는 정치적 행위자로 인정받았다. 또한 토지개혁을 바탕으로 약간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Van Cott 2005).

MNR 정당의 사회개혁은 기존의 원주민-국가의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원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볼리비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MNR의 개혁들이 대부분

조합주의적이고 동화주의적인 특성을 보였다는 점을 주목해 볼만 하다. 농민조직 지도부와 의 연합은 1952년 이후 MNR 정당의 계속된 전략이었다. MNR 정당은 혁명의 승리나, 권력의 획득, 혹은 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농민들을 이용해왔다(Van Cott 2005; Postero 2004).

농민조합모델

1953년 농민조합모델은 코차밤바 계곡의 농민조합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이후 MNR의 사회개혁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농업혁명과 조합주의 모델을 통해 원주민들을 사회 체제 내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이 역시 원주민이 아닌 생산자로서 국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전략이었다(Van Cott 2005). 조합주의 모델의 도입으로 ‘원주민’을 ‘농민’이란 범주로 교체하고, 원주민 조직은 조합으로 제도화되었다. 이 정책은 사유지 공고화를 이끌었으며, 정부의 원주민 관리국은 농업부 산하로 들어갔다. 이로써 농민들로 불리는 원주민들을 정치세력으로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씨족 공동체인 아이유(ayllu)로 공동으로 소유되어온 토지를 인정하거나 보상해주는 대신에(Platt 1999), 개별 등록을 촉구하여 사유지 공고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조합주의 정치시스템은 정치사회적 범주를 공식적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뜻했다. 과거 왕실이나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차별 받고 소외된 원주민 이미지를 “캄페시노”(campesino 토착농민)라는 국가체제와 관련된 새로운 범주로 포함시켰다. 이는 원주민의 종족적 이미지를 지우고 계급적 정체성으로 교체하여, 대중을 통합하고 국가체제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시도였다(Albó 1996).

케추아족의 경험적 판단

농업 개혁과 조합주의 운동에 대한 원주민의 반응은 지역별 처한 조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코차밤바와 아차까지 지역은 이미 원주민 공동체적 질서가 많은 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농민조합모델 이전부터 몇몇 원주민들은 소규모 사유지를 소유하거나 대다수는 대농장의 일꾼으로 참여하고 있었다(Van Cott 2005). 또한 권력분배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나누어져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된 거주 집단인 케추아족들은 국가가 조직한 농민조합모델을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 농민조합모델은 케추아족의 기존 생활방식에 별다른 피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케추아인들은 농민으로의 재정의와 농민조합에의 편입을 반감 없이 받아들였다.

더욱이 농민조합은 농업대출, 보조식량, 식품보급쿠폰, 정부 관심 등으로 원주민들을 보상하였다. 또한 연방 대농장을 폐지한 이후, 농민조합은 원주민들이 개별사유지를 획득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했다. 원주민들을 조합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국가에 전달하는 데 이용하였고, 이러한 기초 조직을 바탕으로 그들은 지역이나 더 큰 지역적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권리를 얻어낼 수 있었다. 케추아인들은 농민조합모델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참여공간을 찾을 수 있었고(Gordillo 2000), 국가후원 농민조합의 조합원이 됨으로써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Van Cott 2005). 이는 ‘2개의 볼리비아’로 불리던 과거의 사회체제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던 일이었다(Albó 1987; Rivera Cusicanqui 1987; Strobele-Gregor 1996; Larson 2004; Postero 2004). 물론 그들의 목소리는 원주민이 아닌 ‘농민’의 요구로 전달되어야 했다(Lagos 1994)

아이마라족의 경험적 판단

이와 달리 라파스 알티플라토(altiplano)와 북부 포토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마라인들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전통적 사회 조직에 강한 연대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사회질서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입된 조합모델이 사유지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아이유 체제와 충돌하였고(Albó 2000, Ticona Alejo et al, 1995, Posner 2004), 조합이 메스티소 도시민들에 의해 주도되어 전통적 사회질서 및 자치의 요구와 부딪혔다. 조합모델의 보상은 아이마라 원주민들의 오랜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이마라인들은 국가에 의해 자신의 전통적 제도가 위협을 받았다고 판단하였고, 종족적 질서나 문화의 보존에 강한 보호의식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아이마라족 거주지역에서 개혁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농민들을 개개의 조합원으로 조직화하는 새로운 농민조합 모델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Rivera Cusicanqui 1987; Eckstein and Merino 2001). 이는 기존 식민구도의 가부장적이고 후원주의적 관계를 재생산하면서(Platt 1999), 아이마라 원주민들이 국가에 의해 배제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후원의 조합주의 모델이 원주민의 정체성을 종족성이 아닌 계급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더 큰 반감을 불러왔다.

종족성 중요도의 변화

정리해 보면, 농민조합모델의 주입이라는 동일한 외생사건은 원주민 집단의 각기 다른 내부조건에 따라 차별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아이마라인들인 농민조합모델의 도입으로 자신들이 지켜온 종족적 제도에 위협을 느끼고, 정부의 프로그램에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농민조합화에 대해 아이마라족이 느낀 종족적 위협도는 케추아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로써 아이마라족이 가진 다중적 정체성 중 종족적 정체성의 중요도는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케추아족은 농민조합모델의 성공적인 흡수로 국가체제에 오히려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케추아족의 다중정체성 중 볼리비아 국민으로써의 정체성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종족 정체성에

대한 중요도는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농민조합모델이라는 외생사건은 단순히 경제적 관점의 개혁이 아닌, 국가와 원주민 관계의 재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외생사건이 발생하면 행위자들은 자신이 처한 개별적 조건에 따라 균형 상태에 있던 정체성들의 중요도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게 된다.

아이마라 원주민의 카타리스타 운동

이와 같은 사회균열을 바탕으로 볼리비아 사회는 새로운 위기국면에 들어섰다. MNR 정당과 같은 좌파농민 운동가들은 카타리스타(Katarista) 운동과 경쟁한 회귀적 경향의 정치적 혁신가라고 할 수 있다. 좌파 농민 운동가들은 기존의 공동체를 벗어나 도시의 사상적 스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앞세워 원주민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좌파 운동가들은 국가적 노동조합을 통해 국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조합적 질서 하에 원주민 지도자들의 자치를 허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좌파농민운동가들의 전략에는 원주민들의 MNR의 전략에는 종족집단의 자치 요구는 간과되어 있었다(Ticona Alejo et al. 1995). MNR 정당은 종족성을 인종주의의 한 형태로 여기고, 근대화의 과정 중에 사라져야 할 것으로 여겼다(Albó 1996).

이에 반해 카타리스타 정치혁신가들은 종족성을 강조하는 카타리스타 운동을 전개하였다. 카타리스타는 1781년 원주민 반란을 실패한 영웅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종족운동가를 자처한 정치적 혁신가 집단이다. 이들은 농민조합과 같은 계급적 문제뿐만 아니라 토착적 권위에 대한 존중과 원주민 문화를 강조하는 이슈들을 내걸고 등장하였다.

아이마라인들은 농민모델을 통해 국가에 대한 피해의식을 강하게 느꼈고, 이 시기 원주민들의 지배적인 집단 정체성은 종족적 정체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합모델의 부적응으로 종족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던 아이마라 원주민들에게는 계급적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좌파 농민운동가들보다 종족적 이슈를 중심으로 계급문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카타리스타들의 호소가 관심사에 더욱 부합하였다. 이와 같은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적 행동과 정치적 동원의 기반으로 작용(김광역 2006)하였고, 결국 아이마라인들은 종족성을 강조하는 카타리스타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는 카타리주의자들이 기초 수준의 조직에서 아이마라족을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조직원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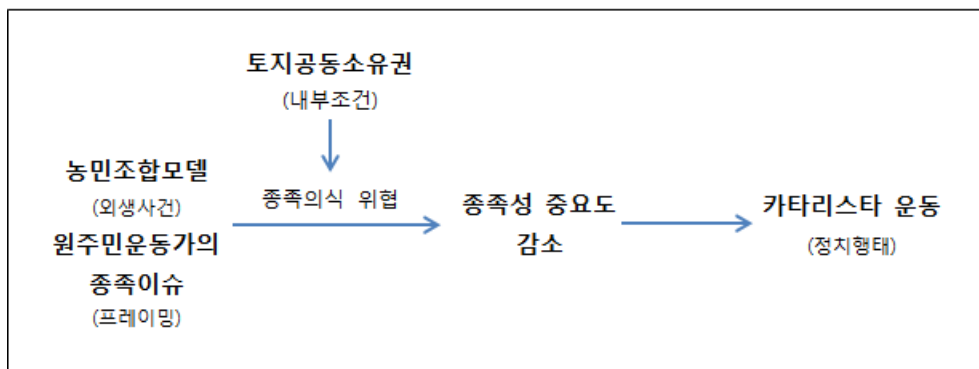


그림3-1 볼리비아 농민조합모델과 정치행태

3.2.3. 군부대량학살(1973)

군부쿠데타와 군사통치

다음으로 살펴볼 종족정치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국면은 군부에 의한 1973년의 원주민 대량학살사건이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부정권의 등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MNR 정당 주도의 국가개혁은 혼란을 거듭하며 볼리비아를 분열시켰다. 12년간 지속된 국민혁명은 1964년 군부쿠데타로 인해 종지부를 찍었고, 이후 20여년간의 군사통치가 시작되었다.

1966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바리엔토스(René Barrientos) 장군은 케추아어를 사용하여 군부쿠데타가 발생하기 직전 파스 에텐소로(Víctor Paz Estenssoro) 대통령의 집권 시기부터 원주민들의 인기를 끌었다. 바리엔토스 대통령은 이러한 인기와 제도적 여건을 이용하여 1953년 농업개혁의 결과로 결성된 농민조합들과 협력하여 '군부와 농민의 협약(Pacto Militar Campesino, 이하 PMC)'을 이루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1960년대 내내 농민조합들을 이용하여 광산의 노동자 파업에 대항하였고, 반정부 세력과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1969년 바리엔토스 대통령의 사망 이후, 정권은 급속히 힘을 잃었다. 이를 기회로 군사쿠데타가 한 차례 발생하였으나, 군인이자 좌파정치인인 후안 호세 토레스(Juan José Torres)는 역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했다. 1970년대 초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를 이용하여 카타리스타와 원주민주의자들은 지지자들을 확보해갔다. 종족적 정치활동가들은 점차 국가 후원의 농민조합과 볼리비아 농민 국가조합(National Confederation of Peasant Workers of Bolivia, CNTCB)을 장악해갔다.

반세르 정권의 독재와 저항

혼란의 시기에 군부와 MNR 정당은 우고 반세르 수아레스(Hugo Banzer Suárez) 대령을 1971년에 대통령으로 취임시켰다. 반세르는 MNR 정당의 후원을 받으며 1971년부터 1974년까지 독재통치를 실시했다. 반세르가 정권을 잡은 이후 동맹이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분열하자, 그는 군인들로 민간인 각료들을 대체하고 정치활동을 모두 중지시켰다. 이러한 조치 하에 반세르 대통령은 경제를 활발히 발전시키는 데에 일조하였으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를 압박하며 대중의 지지를 잃어갔다. 반세르는 짧게나마 활성화되었던 원주민들의 독립적인 정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많은 원주민주의자들과 카타리스타들은 망명의 길에 올랐고, 많은 좌파 군부들도 떠났다.

이러한 위협에도 카타리스타 운동가인 헤나로 플로레스(Genaro Flores)는 망명에서 1972년 돌아와 은밀하게 농민 조합을 만들어 독재에 저항하고자 했다. 1973년 그는 카타리스타 운동의 철학을 담은 티아우아나쿠(Tiahuanacu) 성명서를 돌렸다. 성명서에는 정치정당이 원주민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고, MNR 정당과 바리엔토스 장군의 정당도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그에 따르면 농민들이 기존 정당에 투표했던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로레스는 농민들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주민주의자 루시아노 타피아(Luciano Tapia) 또한 아이마라 족을 해방시키고자 조직을 만들었고, 이것은 투팍카타리 원주민운동(Tupak Katari Indian Movement, MITKA)으로 불렸다(Van Cott 2005).

‘군부와 농민의 협약’과 코차밤바 대학살

이러한 저항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반세르 대통령의 정치적 억압은 멈추지 않았다. 그 중 대표적인 정치적 억압 사례는 코차밤바 계곡지역에서 자행된 원주민 대량학살이다. 이 당시 군부는 노동자와 중산층으로 구성된 민주세력의 투쟁에 맞서기 위해 민간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바리엔토스 장군이 다양한 농민조합 간의 무장 대립을 끝내기 위한 구실로 만들었던 PMC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하였다. 군부는 협약을 통해 코차밤바 계곡의 농민지도자들의 과격파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Regalsky 2006).

그러나 원주민들은 PMC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군부에 대한 저항을 표출했다. 이에 반세르 정부는 강도를 높인 억압적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1973년 톨라타(Tolata), 코차밤바(Cochabamba) 계곡에서 케추아 농민들을 상대로 무력 공격을 자행하였으며, 정부의 대량학살은 최소 13명의 원주민 피해자를 발생시켰다(Van Cott 2005).

원주민의 생존권 위협

국가의 대량학살은 코차밤바 지역의 케추아인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고원지대 아이마라 원주민들은 더 큰 반응을 보였다. 국가에 대한 반감이 높았던 아이마라족 중심의 초기 카타리스타 운동가들은 국가의 폭력에 군부의 대학살에 격분하였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국가무력의 차별적 횡포는 원주민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함과 동시에 종족 공동체를 결집하고 종족의식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아이마라인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의 태도를 더욱 굳혔고, PMC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코차밤바 대학살은 원주민들에게 국가의 종족적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으로, 원주민들의 정치태도는 점차 급진화되었다(Rivera Cusicanqui 1987).

원주민 운동가와 MNR

이때 정치적 혁신가들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 자원 부족과 억압에 시달리던 원주민 운동가들은 MNR 정당을 지지하는 쪽과 대중좌파연합(Popular Democratic Unity)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뉜다(Tlcona Alejo 2000). MNR 정당은 1952년 볼리비아 혁명을 이끌며 진보적 세력의 선두에 있었으나, 우파정당으로 변화한 상황이었다. 원주민 운동가들은 많은 지도자들은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는 정당의 유혹에 굴복하여 정당정책을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종족집단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기 어려워졌다. 기존 정당 참여는 기존의 차별적 사회질서에 기반을 둔 메스티소 정당들에 복종을 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NR 정부의 조합주의와 마찬가지로 원주민 지도자들은 수직적 구조하의 하위부문을 차지하였고, 종족적 문제는 정당의 부차적 과제에 지나지 않았다.

농민조직 운동가의 도로점거

이에 반해, 농민 조직 운동가들은 원주민 세력을 동원하고자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볼리비아 농업노동자 유일 노조동맹(Confederación Sindical Única de Trabajadores Campesinos de Bolivia, 이하 CSUTCB)은 볼리비아가 민주주의로 이전하는 격동의 시기를 틈타 등장하였다. 1979년 볼리비아의 상부 노동조직(Central Obrera Boliviana, COB)은 단일화된 독립적 농민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근대 농민 조합 CSUTCB가 탄생했다.

CSUTCB는 당시 원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와 부합한 정치적 행보를 통해 원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원주민들의 문제를 알리고자 활동하였으며, 그 중 하나는 1979년 도로를 점거한 사건이다. 당시 볼리비아에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의 지시 하에 일련의 경제 계획들이 진행되었는데, 소비자 가격은 높이고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었다(Healy 1991). CSUTCB는 IMF의 조치를 원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일주일이 넘는 도로점거를 통해 점거하여 국가정책에 대한 저항을 표출했다. 결국 도로점거는 국가의 교통을 마비시키며 농작물들이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았다. 이처럼 농민조직운동가들의 정부대항움직임은 원주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며 효과적으로 세력을 넓힐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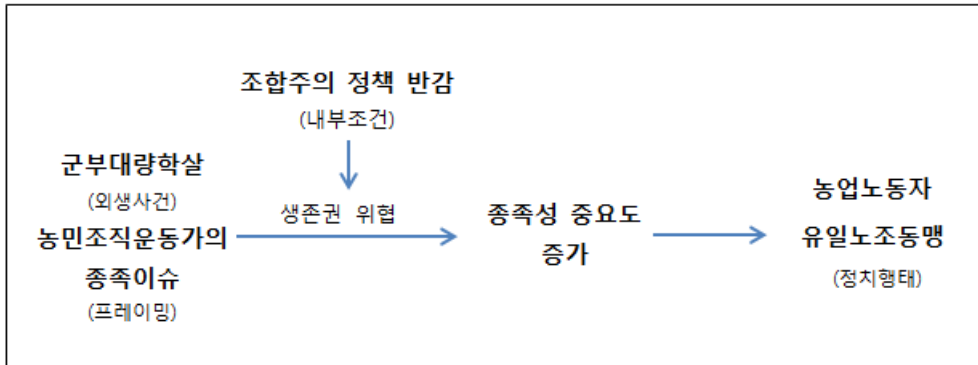


그림3-2 볼리비아 군부대량학살과 정치행태

3.2.4. 경제적 긴축정책(1980-1990)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한계

다음으로 살펴볼 외생사건은 1980년대 실시된 국가의 경제적 긴축정책이다. 1970년대 볼리비아는 광물과 천연가스를 수출하며 큰 폭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며 상황은 반전되었다. 1980년대 초반 광업의 수출과 전통적 생산구조의 농업에 기대어 발전하였던 볼리비아는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Lanza 2007). 1985년 당시 정부의 재정적자는 이전 시기 대비 50% 상승하였으며, 환율은 1982년에서 1985년 사이 4천 배의 상승률을 보였다(Sanjines 2005) 인플레이션과 외채위기도 발생하여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 1984년부터 1985년까지 나타난 2만 퍼센트의 초 인플레 상황은 악화된 경제적 상황을 여실히 드러냈다(Kohl and Farthing 2006).

볼리비아의 경제위기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로, 광업을 바탕으로 성장해오던 볼리비아가 국제시장의 변화에 경쟁력을 잃으면서 국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다. 국제적으로 새로운 광물이 발견되고 최신의 기술이 도입되면서, 볼리비아의 광물가격은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감소한 국가의 재정수입은 볼리비아 경제에 직격탄을 주었다. 둘째로, 1980년대 초반의 국제유가하락이 미친 각 국가에 미친 영향력이 도미노 식 파급력으로 중남미의 외채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석유가격하락으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위기는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의 외채위기를 불러왔다. 중남미 지역에 불어온 경제위기는 볼리비아에서도 피할 수 없었다(Morales and Sachs 1989).

마지막으로 국가내부적 정치불안이 경제적 불안정과 함께 결합되어 더욱 큰 혼란을 낳은 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1964-1982년 동안의 군사독재가 붕괴되면서 1982년에 볼리비아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이질성, 정당의 파편화, 선거법에 의해 정치가 불안정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외화도피 현상이 나타났으며, 정부의 불투명한 재정지출도 급증하여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

광산 노동자의 대량해고

극심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볼리비아 정부는 1980년대 중반 IMF의 강력한 조치 하에 신 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신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다각도의 경제적 긴축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1970년대까지 볼리비아 산업을 지탱하던 탄광들이 대량으로 폐쇄되었다. 광산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는 원주민들에게 생활터전을 앗아감으로써 경제적 위기의식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족성에 대한 원주민들의 중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해고조치에 의해 불시에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대부분 코차밤바주의 차파레(Chapare)로 이주하여 코카재배업을 시작하였다. 경제적 돌파구를 찾고자 코카 재배업에 종사하게 된 원주민들은 일종의 계급적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었다. 코카 재배업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은 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상황들을 해석하였고, 종족성을 강조하는 원주민

문화보다 계급성을 강조하는 운동가들과 연대하기 시작했다.

코카재배 근절정책

1980년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압박으로 코카재배 근절 정책을 발표했다. 볼리비아는 페루와 콜롬비아에 이어 코카인 생산의 3대 국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으며, 볼리비아에서 생산된 코카는 미국으로 다량 소비되었다. 이에 1980년대부터 미국의 주도로 코카재배 금지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로 한 차례 삶의 터전을 잃은 볼리비아 원주민들에게 환금성 작물로서의 코카는 거의 유일한 경제적 대안이었다. 당시 볼리비아 농민들의 수입원 중 코카재배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코카재배업자에게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행된 코카재배 근절정책은 볼리비아 농민 대다수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조치였다.

정부의 강경한 코카재배 근절정책은 코카재배업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인 코칼렐로(cocalero)들의 경제적 위기의식을 자극하였다. 코칼렐로들은 앞서 언급한 볼리비아의 경제위기로 인해 탄광에서 내몰려 볼리비아 중부 코차밤바주의 차파레로 이주한 광부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광부노조의 전통을 바탕으로 전투적 계급 투쟁을 일으켰던 코칼렐로들은 정부의 코카재배 근절정책에 강력한 저항의지를 표명했다(Albó 2008). 이는 경제적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집단행동의 기반이 되었다.

1985년 대선거

오랜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그 동안 억눌려온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레스 수아소(Hernán Siles Zuazo) 정부는 1982년부터 1985년까지의 집권시기 동안 계속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민주주의로의 전환으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국내외적 심각한 경제위기가 맞물리면서, 정부는 통치불능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세력의 파편화는 정치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한 과제로 만들었다. 사회부문에서는 볼리비아 노동연맹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왔다. 결국 실레스 수아소 정부는 임기축소를 받아들이고 1년을 앞당겨 대선을 실시했다(Toranzo 2006).

1985년의 선거는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시장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자리를 두고 다양한 세력이 경쟁하였다. 이를 계기로 당시 323개의 정당과 정치단체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민들은 선거참여에 대한 열기가 상승하면서 1985년 전국에 323개의 정당과 정치단체가 등장하였고, 원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표를 던졌다. 기존 종족정치의 입장과 같이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원주민의 종족정치가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도와 체제의 변환은 원주민 정치활동의 참여는 설명해주었으나, 그 행동의 방향까지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정치참여의 기회 속에 원주민들의 정치행태는 코카재배 근절정책과 맞물린 정치적 해석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다.

코카재배업자의 사회운동

이때, 계급적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정치혁신가들은 계급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농민조직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들은 정부에 경제적 요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코카의 상징적 의미를 살려 종족성에 대한 이슈도 크게 부각시켰다. 코카는 제식 등에서 영적인 용도로 쓰이고 전통적으로 소비해온 원주민 문화의 상징이었다. 코카잎 재배는 3천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남미 안데스 지역의 전통이다. 페루와 볼리비아에 걸친 안데스 산악지대의 원주민들은 실생활에서 고산병, 추위, 배고픔을 잊기 위해 코카잎을 사용하였다.

코카인을 씹거나 차나 술로 마시고 또한 식용분말, 치실 등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더 나아가 코카인을 신성시하여 종교의식에도 사용하였다.

결국 코카재배업자들의 사회운동은 160개 지역조합과 30개 연맹 하부조직, 5개 연맹이라는 거대 조직을 형성할 수 있었다(김기현 2012). 원주민의 정치참여를 이끈 가장 큰 동력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에 있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코카를 종족적 상징으로 내세우면서 코카인을 재배를 하지 않는 원주민들까지 포섭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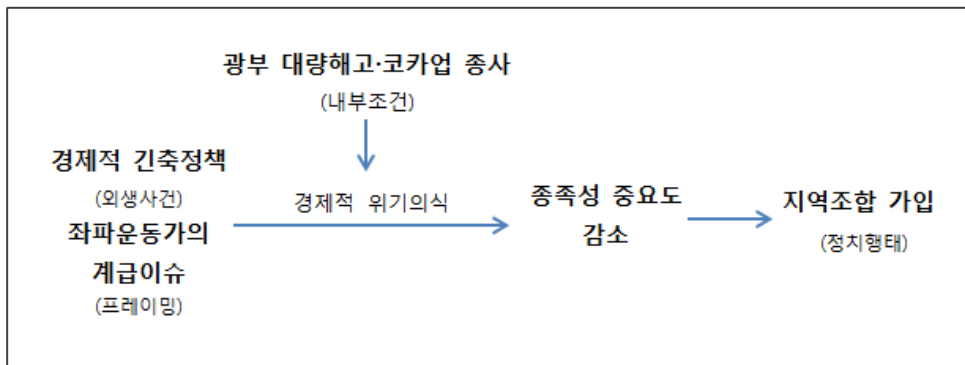


그림3-3 볼리비아 경제적 긴축정책과 정치행태

제3절 볼리비아 종족정치의 발전요인

볼리비아 원주민들의 집단 정체성 형성을 통한 종족 조직 형성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볼리비아 원주민들은 각기 다르게 처한 조건에 따라 외생사건에 대한 반응을 달리하였는데, 농민조합모델과 군부대학살은 종족 공동체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여 종족의식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원주민들의 종족정체성을 부각시켜 사회조직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정치적 혁신가들은 대체로 종족과 계급과 같은 다양한 이슈를 혼합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원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다. 즉 종족지도부의 종족적 이슈는 궁극적으로 식민적 권력기반에 근본적인 비판으로 기능하였지만, 일차적으로는 원주민이 처한 조건과 이해를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었다.

이에 반해 원주민들에게 계급성을 강조하여 농민 혹은 노동자조직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좌파 운동가들은 오로지 계급적 주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정책이나 폭력에 의해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사회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계급문제는 원주민들의 관심사를 모두 아우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정된 원주민들에게만 쟁점의 중요성이 평가될 수 있어, 원주민들의 확보에 수적으로 열세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적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시기에는 원주민들의 코카재배업이 위협받으면서, 계급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좌파운동가들의 계급이슈 중심의 사회운동은 원주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원주민들은 지역조합에 가입하며 조직화되었다.

즉 원주민의 내부적 조건에 따라 외생사건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관심 이슈가 정치적 혁신가의 프레이밍과 일치한 경우 해당 집단에 대한 원주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볼리비아 원주민은 전통적 질서를 지켜오며 국가의 근대화 정책에 반감을 드러냈고, 종족조직 지도부의 전략적으로 원주민의 적대감을

활용하였다. 이에 종족지도부는 행위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이슈를 선점하였다. 더불어 또 다른 정치적 혁신가 전략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계급적 정치혁신가와 달리 종족적 정치혁신가는 종족뿐만 아니라 계급성 이슈를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경계(boundary)의 원주민들을 포섭할 수 있었던 점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볼리비아 종족조직의 원주민 동원과정은 정치적 세력이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역방향 인과관계”(Chandra 2007)을 여실히 보여준다. 종족적 정치혁신가들은 원주민의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종족적 사회균열을 부각시켰다. 원주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종족 조직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종족조직이 생산한 종족적 저항의식을 내재화하였다. 결국 볼리비아 종족조직은 원주민들의 종족의식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했다. 원주민의 높은 종족의식에 기반하여 볼리비아 종족정치의 성공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의 입장과 달리, 다양한 정치적 권력갈등이 전략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활용하였다.

외생사건		농민조합모델 (1952)	군부의 대량학살 (1973)	경제위기 (1980년대)
관심도 분화		종족 중요도↑	종족 중요도↑	계급 중요도↑
프레이밍	주도세력	원주민 운동가	농민조직운동가	코카재배업자
	선점이슈	종족+계급	종족+계급	종족+계급
이슈평가		관심도=쟁점	관심도=쟁점	관심도=쟁점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		종족적 정체성	종족적 정체성	종족적 정체성
정치행태		카타리스타 조직	농업노동자 유일 노조동맹	160개 지역조합 30개 연맹 하부조직 5개연맹

표3-4 볼리비아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과 조직 형성

제4장 과테말라 사례분석

아직까지 과테말라 종족정치의 발전은 매우 미약하다. 전체 의석 수 대비 원주민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의 비율은 1985년 8%, 1990년 5.2%, 1995년 10% 에 머물러,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원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Hall and Patrinos 2006). 원주민 운동은 방향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지속성도 부족하여 사실상 하나의 운동(movement)으로 규정하기도 어렵다(김기현 2012). 이렇듯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족정치의 부진한 결과를 낳은 사례는 종족정치 동학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치동학에 대한 현상 해석적인 분석을 피하고 균형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실패 사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테말라 원주민 대중과 종족정당간의 정치적 연대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의 종족적 다양성이 투표유동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Bartolini and Mair 2007, Birnir 2006). 종족적 다양성이 높은 사회에서 투표자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종족을 대표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원주민들 또한 종족정당에 대한 안정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1980년에서 1997년 사이 28.65%의 낮은 투표유동성을 보였다. 이에 반해 1985년에서 1999년 사이 나타난 과테말라의 투표유동성은 앞선 수치를 훌쩍 웃도는 43.56%였다(Madrid 2005).

종족균열 중심의 정치활동에 대한 원주민들의 외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1999년 실시된 국민투표이다. 1999년 국민투표는 평화협정에서 인정된 원주민의 권리를 포함하여 몇 가지 개정사안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를 국민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결과는 일반적인 예측과 다르게 드러났다. 57%라는 절반이상의 반대표로 헌법개정안은

무력화되었다. 원주민 인구가 지역 전체인구의 50%가 넘는 수치테페케스(Suchitepéquez)와 케찰테낭고(Quetzaltenango) 지역의 찬성률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났다(Stavenhagen 2002). 이 장에서는 과테말라에서 종족정치가 발전되지 못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종족정치의 조직화 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제1절 과테말라 원주민의 내부조건

원주민의 인구 구성과 주거

오늘날 과테말라의 세대조사는 자기 인식(self-perception)과 언어(language)를 통해 원주민 인구를 파악한다. 자기 인식 기준은 198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1981년까지 과테말라 인구조사는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원주민 정체성을 판별하였다.¹⁰⁾ 기준과 조사기관에 따라 과테말라의 원주민 인구 비중은 전체인구의 40~60%(Madrid 2005)로 집계되며, 대략 절반의 인구가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14,636,487명 중 5,854,251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과테말라 원주민 인구 비중은 중남미 지역에서 볼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INE 2014).

특히 과테말라의 원주민 인구 비중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최근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 1778년 기준 과테말라 원주민의 인구 비중은 90%를 넘었으나,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오다 1989년에는 37.12%에

¹⁰⁾ 과테말라 통계청은 질문대상자에게 원주민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다. 인구조사에서 직설적이고 단순한 자기인식기준을 사용하면, 원주민 인구수가 실제보다 적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Hall and Patrinos 2006; 김기현 2012에서 재인용).

이르렀다(김기현 2012). 그러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과테말라 전체 인구의 성장과 함께 원주민의 인구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원주민 인구 비중
토토니카판(Totonicapán)	97
솔롤라(Sololá)	96.5
알타베라파스(Alta Verapáz)	89.7
키체(Quiché)	88.6
치말테낭고(Chimaltenango)	78.4
우에테낭고(Huehuetenango)	57.5
바하베라파스(Baja Verapáz)	55.8
케찰테낭고(Quetzaltenango)	51.7
사카테페케스(Sacatepéquez)	46.5
과테말라시티(Guatemala)	24.2
전 지역 평균	40

표4-1 과테말라 주요 지역별 원주민 인구비중

출처: INE 2014

과테말라 원주민들은 지역별 높은 밀집도를 보인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22개주 중 8개 주에서 원주민 인구가 과반수를 넘는다. 원주민들은 대부분 중부와 서부 고지대, 중동부 지역의 알타베라파스(Alta Verapáz)와 바하베라파스(Baja Verapáz)주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중부와 서부 고지대의 토토니카판(Totonicapán)과 솔롤라(Sololá)는 각각 97%, 96.5%의 인구비중으로 원주민 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중동부지역의 알타베라파스(Alta Verapáz), 키체(Quiché), 치말테낭고(Chimaltenango) 주 또한 각각 89.7%, 88.6%, 78.4%로 지역의 대다수가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테말라 원주민 인구의 대부분은 마야족에 속한다. 21개의

개별종족이 범 마야족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중 중 키체(K'iche')족이 27.5%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켁치(Q'eqchi')가 20.75%, 각치켈(Kaqchikel)이 19.5%, 맘(Mam)이 13%에 이른다. 위 4개 종족이 이들 4개 종족이 전체 마야족의 대다수의 80.75%를 차지한다. 나머지 종족의 인구 비중은 한 자리 수에 머물며 미미한 수준이다(INE 2014).

종족	인구비중
키체(K'iche')	27.5
켁치(Q'eqchi')	20.75
각치켈(Kaqchikel)	19.5
맘(Mam)	13
칸호발(Q'anjob'al)	2

표4-2 과테말라 원주민 구성

출처: INE 2014

차별과 폭력의 내재화

과테말라에서는 아직도 원주민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식이 뿌리 깊으며,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과테말라 내전은 수백 년 넘게 지속돼 오고 있는 원주민에 대한 경멸과 인종주의를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발생한 과테말라 내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주로 과테말라 원주민들이다. 이러한 내전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행되는 원주민에 대한 차별은 문맹률, 소득, 교육의 차이와 같은 구체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과테말라 원주민의 문맹률은 볼리비아 원주민들보다 높으며, 비원주민에 비해 소득과 교육에서의 차이도 상당하다(Hall and Patrinos 2006). 원주민의 극빈율은 20.1%로 비원주민의 극빈율 4.9%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이처럼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가 종족적 차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과테말라는 종족정치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과테말라의 문화적 사업가와 행위자간의 역학관계 분석은 유사한 조건 하의 볼리비아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종족 조직형성의 결정요인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비원주민	원주민	비율
극빈율	4.9	20.1	0.24
빈곤율	27.2	47.3	0.58

표4-3 과테말라 원주민 빈곤율

출처: Barrón 2008

제2절 시기별 원주민의 정치행태 분석

4.2.1. 식민시기-우비코 정권(1821-1944)

과테말라 원주민들은 불공평한 근로법으로 인해 대농장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독립 이후 1944년까지 호르헤 우비코(Jorge Ubico), 에스뜨라다 까브레라(Estrada Cabrera) 등 강력한 소수 과두주의자들의 장기 집권이 이어졌다. 소수 중심의 지배적 사회질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의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차별 구도를 심화시켰다. 하지만 당시 우비코 대통령은 과테말라 내에 산적한 원주민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였고, 국가 내에 원주민 문제가 없다고 국제적으로 선언하였다. 이에 과테말라 정부는 당시 새롭게 설립된 미주 원주민 기구에 가입을 거부했다. 이 시기 과테말라는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중앙 정부는 원주민과 농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Konefal 2010).

이 가운데 토지는 과테말라에서 원주민과 비원주민간의 빈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Painter 1989). 독재정부는 가난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외국 투자자들과 소수 대지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원주민들의 전통적 사회질서와 토지보유구조는 국가정책에 의해 급격히 변화했다.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한 대지주가 경작 가능한 토지의 80%를 차지하였고, 가난한 다수의 원주민들은 부채에 허덕였다. 또한 법률에는 미국의 초 국적기업 유나이티드 프루츠 사(United Fruits Company)를 비롯한 대지주들의 바나나 대농장과 커피생산지에서 고지대 원주민들이 노예에 가깝게 노동하도록 강제하는 계약 근로법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의 경제의 기반은 무보수에 가까운 원주민의 노동력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1871년부터 1944년에 이르는 70여년 동안 커피 등의 수출 작물은 대부분 원주민의 노동력에 의존했다. 또한 우비코 대통령은 도로나 사회시설의 건설을 원주민들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 정부와 국가 엘리트들에게 여전히 문명화되지 않은 원주민은 “유용하고 생산적(useful and productive)”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Konefal 2010).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과 대지주들의 불평등한 고용과 착취로 고통 받은 원주민들에게는 공통의 계급적 배경을 바탕으로 집단 의식이 형성되어 왔다.

이 시기 소수 과두주의자들의 장기집권은 제2차 세계대전의 민주화 압박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44년 농민들의 시위와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 후안 호세 아레발로(Juan Jose Arevalo) 정권이 들어섰다. 아레발로 정권은 교사, 학생, 노동자 연합의 지지를 받았다.

4.2.2. 국가주도 노동조합정책(1944-1954)

민주정권의 경제적 접근

후안 호세 아레발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한 급진 개혁들이 추진되었다. 원주민들과 문맹인들을 위해 공민권을 부여하였고

자유선거를 제도화하였으며,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학교신축과 빈농들을 위한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노동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 결성을 촉진시켰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과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민주화 개혁을 이끄는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나갔다(권문술 1992).

과테말라 원주민들은 볼리비아 원주민들과 다르게 공통적으로 대농장과 커피 생산지에서의 노동자로서 계급적 이해를 공유하는 집단에 가까웠다. 이러한 계급적 집단의식은 조합주의와 같은 근대정책의 변화를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기반이었다. 농민조합 정책을 포함하여 국가의 일련의 개혁들은 계약직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농지개혁은 대지주에 의한 원주민의 노동착취 조건을 근본적으로 전복시키거나 나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원주민들은 조합모델을 통해 노동자의 결집과 이익도모를 추구할 수 있었다. 이에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반응은 볼리비아의 농민조합모델 주입 시 나타났던 원주민들의 반응과 상반되었다.

아레발로 정권 이후 1951년 들어선 아르벤스 구스만(Jacobo Árbenz Guzmán) 대통령은 사회개혁을 이어갔다. 산업의 국유화를 이끌었으며,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발전소 등 사회의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특히 1952년 223 에이커 이상의 불용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한 농지개혁은 아르벤스 정부의 대표적 사회개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진적 개혁은 대지주들의 불만을 살 수 밖에 없었다. 아르벤스 정부의 조치에 가장 크게 반발한 유나이티드 프루츠 사(社)는 당시 과테말라의 전체 농지 중 2%를 소유하던 거대지주였다. 더욱이 유나이티드 프루츠 사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토지 공시가격을 최대한 낮춰 놓았기 때문에 농지개혁으로 입을 적자가 상당하였다(노용석 2014).

결국 대대적인 토지개혁은 끝내 미군 지원 하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유나이티드 프루츠 사는 반아르벤스 정책을 전개하였고,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는 과테말라의 쿠데타를 지원했다. 그 결과 1954년 아르벤스 정권은

무너지고, 이후 과테말라에서는 군부통치가 시작되었다(Handy 1985).

군부정권의 문화적 접근

군부는 원주민에 대해 문화적인 접근 정책을 시도했다. 당시 집권하던 군부는 반 아르벤스를 외치며 정권을 획득한 세력이었다. 따라서 군부는 아르벤스의 개혁정책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고, 원주민 정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민주정부는 노동조합을 통해 원주민을 국가체제에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군부 정권은 좌익계 정당과 중도파를 탄압했고, 노동조합 또한 무자비한 탄압의 대상이었다. 군부정부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원주민 문제를 농업부가 아닌 교육부에서 다뤘다. 군부정부의 이와 같은 지침은 원주민의 사회통합이 교육과 문화적인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련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 원주민의 탈문맹화와 문명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김기현 2012).

도시원주민의 종족운동

정부의 문화적 통합 정책은 도시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을 일으켰다. 도시원주민들은 종족성이 사회적 통합 정책에 의해 색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문화적 측면에서 마야주의 종족운동을 일으켰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종족성 회복에 몰두한 종족 정치혁신가들은 마야어 회복운동이나 여성통합분석센터(Centro de Diagnostico Integral de la Mujer, CEDIM) 조직, 도시원주민들의 마야 정체성 찾기 운동 등 문화적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1990년대에는 문화적 이슈를 넘어 인구수에 비례한 공직 할당 등의 정치적, 법적 문제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과테말라 원주민의 계급의식 공유

도시의 마야주의 운동가들의 문화이슈 선점 전략은 군부통치 이후 민주정부 시기보다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에 시달리게 된 과테말라 원주민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했다. 전통적 토지소유와 사회질서로 국가의 통합적 조합정책과 갈등을 일으켰던 볼리비아의 아이마라족들과 달리 과테말라의 원주민들은 이미 근대적 노동자로서 계급적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었다. 따라서 문화적 통합정책은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실제 삶과 이미 괴리되어 있었고, 경제적 문제 중심의 원주민 대중의 관심과 거리가 먼 이슈들은 종족운동에 대한 정치적 협력 의지를 감소시켰다.

또한, 마야운동 지도부들의 계급적 격차는 빈민이자 원주민인 대중들의 종족적 집단의식을 약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도시 원주민들은 농촌의 원주민들과 달리 계약직 노동자에서 벗어나 사회적 엘리트 계층에 속했다. 농촌의 원주민들은 도시의 원주민들과 계급적 연대의식이 결여되어 있었고, 종족적 문화와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마야주의 사회운동에 참여할 유인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도시원주민들의 마야 정체성 찾기 운동은 조직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마야인 문화운동 지도자들은 개혁을 위한 국내의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국제적 지원에 의존하여 외부적 압력으로 국가개혁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Fischer 2004).

좌익 게릴라의 세력 확장

좌익게릴라 운동세력들은 도시원주민 중심의 마야주의운동과 달리 원주민의 지지와 참여를 얻어낼 수 있었다. 당시 군부는 국제사회의 냉전의 흐름으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미국 지원 하의 좌익과 진보세력, 농민조합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탄압에 대항해 발생한 좌익게릴라 세력들은 스페인 혈통과 마야 혈통이 섞인 라디노(ladino)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정부에 대한 피해의식을 공유하며 빈민 원주민 계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좌익 게릴라 세력들은 1962년 저항군(Fuerzas Armadas Rebeldes, FAR), 1971년 무장민족조직(Organización del Pueblo en Armas, ORPA), 1972년 민족게릴라군(Ejército Guerrillero del Pueblo, EGP)등을 창설했다(노용석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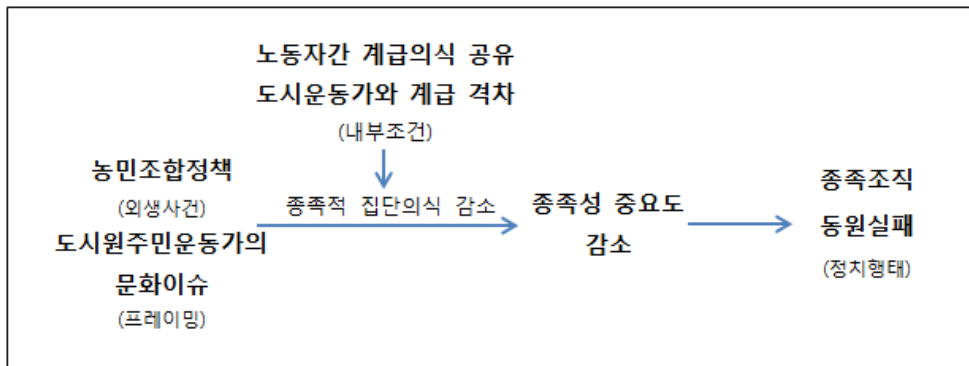


그림4-1 과테말라 노동조합정책과 정치행태

4.2.3. 군부대량학살(1978-1982)

라 비올렌시아(La violencia)

과테말라에서는 1954년 쿠데타 이후 1983년까지 쿠데타와 정치인 암살 등 정권을 둘러싼 불안이 지속되었고 군부와 민간정부가 번갈아 정권을 잡았다. 이들은 반공주의를 내세워 정부탄압에 대항하는 게릴라 진압을 계속 이어나갔다. 특히 군부정부는 “Victoria 82” 운동과 “Fortaleza 83”, “Plan de Operaciones”등의 작전명 하에 무장게릴라 섬멸에

나섰다(Plaza Pública 2011). 그 중 가장 극렬한 폭력시기는 대략 로메오 루카스 가르시아(Fernando Romeo Lucas García) 장군이 집권한 1978년에서 1982년까지이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역사상 최고의 독재정치를 펼쳤으며, 야당정치인은 물론 학생운동 지도자나 노조간부가 비밀조직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이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이 시기를 고원지대에 위치한 마야원주민들은 폭력이라는 뜻의 ‘라 비올렌시아’(la violencia)라고 부른다(Sanford 2003). 게릴라 세력에 동조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빌미 삼아 원주민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대량학살이 이어졌기 때문이다(노용석 2014).

군부는 수적으로 우세한 원주민들이 라디노 세력에 밀착하여 국가체제에 도전하는 것을 보며, 종족 정체성 회복운동이 계급투쟁보다 체제에 대한 더 큰 위협이라고 간주하였다. 이에 원주민들의 종족적 정체성 형성을 막고자 원주민 공동체 거주지역에 물리적 탄압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테말라 군대는 알타베라파스의 판소스(Panzos) 원주민, 엘끼체에 거주하는 익실마야원주민과 끼체 주 사꾸알빠의 끼체원주민, 우에우에떼낭고에 거주하는 추흐와 깐호발 원주민, 바하 베라빠스의 아치원주민 등 마야 원주민 공동체 거주지역에서 대량학살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군부는 1980년 스페인 대사관 앞에서 약 30여명의 원주민 시위자들이 산 채로 불태웠다(Schirmer 1998). 군부의 이와 같은 탄압은 원주민으로 하여금 원주민의 종족정체성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리오스 몬트의 억압정치

1982년 리오스 몬트(Rios Montt)는 새로운 군사 쿠데타로 가르시아 정권을 전복하고 정권을 차지했다. 리오스 몬트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보다 높은 억압정치를 실시하였다. 전임 군부정권과는 좀 더 색다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당시 과테말라 무장게릴라는 서부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곽지역의 치안과 정치상황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 또한 리오스 몬트가 집권하던 시기 과테말라 경제는 급속도로 나빠져 국가운영에 큰 위기상황을 만들었다(Seligson and Booth 2010). 이에 정당에 대한 탄압은 물론 헌법을 폐기하고 의회해산을 감행하였으며,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무장게릴라 섬멸작전도 그 강도를 높였으며, 군대와 시민 방위대(Patrullas de Autodefensa Civil, PAC)라는 민병대를 동원해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1982년부터 1983년 리오스 몬트(Rios Montt)가 정권을 잡은 시기, 매달 약 2,000명 이상의 실종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원주민이었다(Garrard-Burnett 2010).

마야주의 운동가의 등장

긴 시간 발생한 과테말라 군부의 대량학살에 의해 발생한 정치혁신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정부에 대항한 좌익 중심 무장 게릴라 세력이 한 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야주의 운동가들이 나타나 정체성 회복 움직임을 보였다. 대부분의 마야활동 지도부들은 내전의 탄압 가운데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적 종족성 강조를 택했다. 극도의 폭력적 투쟁의 상황에서 제 3의 대안을 모색했던 것이다. 이들이 내전과 같은 폭력상황에 내건 해결책은 비폭력, 문화적 방법이었다. 그 결과 마야주의 정치혁신가들은 종족적 전통 보존과 같은 문화적 이슈에만 관심을 보이며 1980년대까지 문화활동에만 전념하였다.

이들은 마야 상형문자, 마야식 이름 개명, 마야 수 체계 역법 연구, 전통문화 회복, 마야문화 관련 출판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Fischer 2004). 이 중 대표적인 활동그룹들에는 과테말라 마야어 아카데미(Academia de Lenguas Mayas de Guatemala, ALMG), 출판사업의 출사마하(Cholsamaja), 마야자료 연구센터(Centro de Documentación e Investigación Maya, CEDIM), 과테말라 마야 조직위원회(Consejo de

Organizaciones Mayas de Guatemala, COMG) 등이 있다(김기현 2012).

마야 원주민의 선택

그러나 종족성이 생존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대중들에게 지도자들의 안전한 전략은 원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구호였다. 당시 군부는 마야원주민들을 독특한 전통과 종족적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국가정치에 저항적이며 라디노 중심의 게릴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노용석 2014). 따라서 마야 원주민의 문화주의적 구호는 원주민들에게 군부의 원주민 차별을 강화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종족성을 지키도록 이끌면서, 생존권에 대한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는 현실과 괴리된 주장에 불과했다.

1960년에서 1996년의 과테말라 내전 기간 중 전체 사망자나 실종자는 25만명을 넘었고, 망명의 길에 오른 사람들은 100만명이 넘었다. 그 중 93%는 마야 원주민들이었다. 유엔소속의 과테말라 역사진실규명위원회(Comisión para el Esclarecimiento Histórico, CEH)는 과테말라 군부의 공격에 의해 440개 이상의 마을이 초토화되었고, 626개 이상의 공동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전한다(Simon 2003).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민들은 정치사회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민중운동 세력을 지지했고, 마야원주민들과 직결된 생존문제와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마야주의 운동가들은 원주민 대중의 외면을 받아 정치세력화의 한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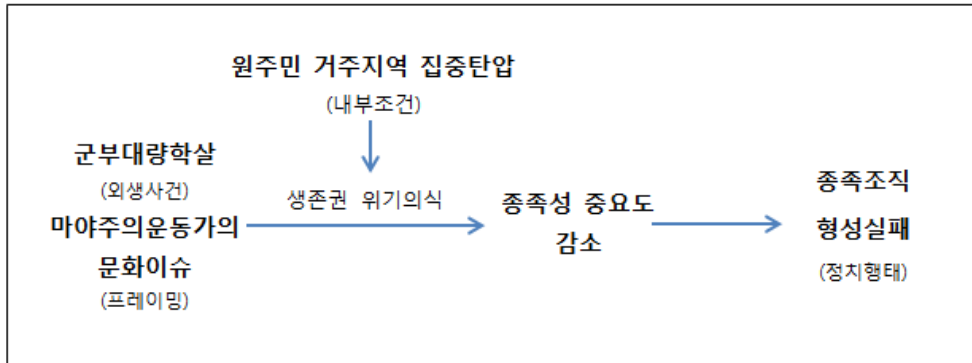


그림4-2 과테말라 군부대량학살과 정치행태

4.2.4. 농업위기(1960-1980)

플랜테이션 대농장

마지막으로 살펴볼 과테말라의 구조적 외생사건은 1960-70년대 나타난 농업위기이다. 대체적으로 과테말라는 토지소유구조가 양극화되어 있다. 대토지를 소유 경영하는 소수와 영세경영으로 나뉜다. 또한 주된 산업이 농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제적 가격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아 경제전체가 국제흐름에 따라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부고지대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은 1960-70년대 농업 위기로 토지를 상실하였고, 점차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동자로 전락했다. 플랜테이션은 매우 열악한 조건으로 날품팔이 노동을 원주민에게 맡겼다.

마야원주민의 문화적 순수성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정치혁신가는 급진화된 마야원주민이었다. 급진 운동가들은 기존의 마야주의 운동가들과 원주민 문제의 접근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존의 마야주의 운동가들은 마야원주민과 라디노를 시골과 도시, 전통과 근대, 빈곤과 부라는 극단적 이분법에 분리시켰다(최진숙 2005). 마야주의 운동가들이 회복하고자 원주민의 정체성은 근대성에 대립하는 전통의 개념이었으며 문화적 순수성(authenticity)에 대한 노스텔지아(nostalgia)였다(Hill 1998). 결국 근대성과 마야정체성을 가르는 극단적 이분법은 현대 원주민의 변화와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지 못했다. 마야어 이름 찾기, 마야 문헌 보존 활동 등은 마야 원주민의 변화를 간과하고 그들을 여전히 전통과 과거의 박물관 속 박제 대상으로 고정시켜놓으려는 시도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고,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원주민이 아닌, 박물관이나 우편엽서에서 계속해서 나와주고 나라의 상징이 되어줄 원주민으로 보는 시선으로 가둔 것이다. 즉, 범 마야운동의 문제는 다양한 구조적 변수가 아닌 원주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대적 원주민의 다양성

이에 반해 급진원주민 운동가들은 근대의 맥락에서 유연한 원주민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들은 원주민이 실제로 놓은 상황과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계급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 대부분의 마야인들과 가난한 라디노 농민들 모두를 포섭하고자 했다. 이 시기 원주민들의 관심은 열악한 경제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 대중의 관심과 마야 정치혁신가들의 쟁점은 정확히 일치했다. 많은 원주민들은 마야주의 문화순수성 담론을 외면하고 계급적 담론을 택했다.

이러한 원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1978년 농민연합위원회(Comité de Unidad Campesina, 이하 CUC)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계급 조직의 활동은 지극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 예로 1980년 2월 파업은 남부해안의 사탕수수와 면화 플랜테이션 농장에서의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발생했다(김기현 2012). 이러한 접근은 원주민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주민 개개인들이 스스로의 자구책으로서 계급적 정체성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CUC라는 계급조직만이 원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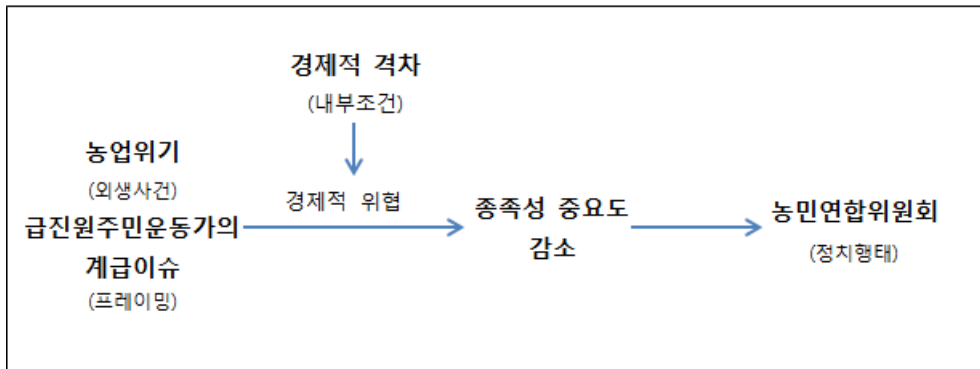


그림4-3 과테말라 농업위기와 정치행태

제3절 과테말라 종족정치의 부진요인

과테말라에서 각각의 외생사건마다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종족적 정치적 혁신가의 쟁점과 원주민 대중의 관심과의 불일치이다. 원주민 대중들은 일찍이 시행된 노동법에 의해 대농장의 계약노동자로서 계급적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계속적인 경제적 탄압과 위기를 겪으며 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화된 마야 지도층 원주민들은 문화적 종족성에만 천착하여 원주민 대중의 삶과 괴리되었고 결국 종족운동의 경계를 넓히지 못했다. 이는 볼리비아의 종족성 정치적 혁신가들이 종족문제와 계급문제를 아울러 원주민대중들을 포섭하려 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과테말라 종족지도부들은 당시 원주민 대중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적 문제에 소원했다. 종족지도부들은 도시화를 겪으며 원주민 대중들과 달리 경제적, 사회적 계층 이동을 겪었고,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범 마야운동 지도자들은 ‘원초적으로 내재하는 종족의식’에 기대어 종족적 문화 보존운동에 원주민들을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과테말라 조직 형성 부재의 원인은 다른 아닌 정치적 혁신가들의 프레이밍 전략 실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종족 정치적 혁신가들은 원주민들이 상이한 내부조건에 따라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고 원주민의 개별적 요구와 관심사를 간과했다.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만을 주입하고 일방적으로 대중을 이끌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원주민의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갈등을 부각시키고 대안을 제시한 좌파 농민 운동가들의 프레이밍 전략은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요구와 정확히 들어맞았다. 좌파농민운동가들의 전략은 계급적 집단의식과 경제적 생존권에 대한 위기감이 공유되어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호소될 수 있었고, 결국 계급운동에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사실상 CUC는 마야키체족이 중심이 되어 시작했고, 지지기반 또한 원주민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운동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계급적 이해관계로 명시하였고, 문화적 범 마야운동과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CUC의 성공을 원주민 종족 운동의 발전으로 볼 수는 없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과테말라 원주민 지식인들과 원주민 대중과의 거리감에 대해 마야대중의 문맹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부재, 정치적 현실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마야인 지도층들은 원주민 대중들의 종족적 정체성 자각과 문화적 단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마야주의자들의 의도와 달리 마야식 이름 개명과 같은 문화적 접근은 대중들이 마야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하기 보다, 원주민 대중들이 마야주의 운동에 거리감을 느끼는 계기로 작용했다. 국가적 폭력과 경제위기로 원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야주의 문화의 회복은 원주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마야문화의 순수성을 주장한 마야주의 운동가들은 원주민 대중의 현실을 외면하고 체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라는 담론적이고 이상적인 사상에 몰입해 있었다.

마야주의 운동가들은 과테말라 원주민 대중들의 능동적 정체성 설정 과정과 정체성 집단에 대한 “발로 하는 투표(vote with their feet)”^⑩의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원주민들이 다양한 정치조직 중 종족조직에의 참여와 지지를 선택하는 현상은 종족성에 기반한 당위적 행동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선택이다. 조직차원에서는 전략의 성패를 알 수 있는 투표와 같다. 그러나 마야주의 운동가들은 정치적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원주민들이 원주민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만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원주민 대중들이 식민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으며,

^⑩ 경제학자 티부(Tiebout)는 시민들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해 도시를 이전하는 현상을 “발로 하는 투표”라 일컬었다(1956).

자신의 이해나 권리에 대한 현명한 의식이 결여 되어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저항적 원주민에 대한 획일화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다. 반(反)근대적이며, 경제공동체적이고 주변부에 머무는 원주민이 체제에 대해 저항하는 이미지는 중남미의 “값싼 희망”이라고 비판되기도 한다(Stefanoni 2010). 과테말라 종족 조직 부재의 주요 원인은 원주민의 무지나, 지도자의 카리스마의 문제가 아닌 원주민의 관심과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파악하려는 의도조차 부재한 정치적 혁신가의 프레이밍 전략 실패에 있다. 원초주의적 마야 순수성 담론은 정치지도부의 이데올로기적 주장이었다.

반면 과테말라 좌파연합은 계급적 집단 의식이 공유된 원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갔다. 좌파연합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슈를 선점하여 계급 정체성으로의 프레이밍을 시도하였다. 이에 과테말라 원주민들은 실리적 조합주의에 강한 지지와 연대의식을 표하였다. 좌파연합에의 연대는 종족 조직의 이슈에 대한 원주민의 불만을 뜻했다. 또한 역으로 좌파연합의 프레이밍 과정은 과테말라 원주민 집단의 계급정체성을 재생산하는 계기로 기능했다.

외생사건		교육·문화정책 주입 (1954-현재)	군부의 대량학살 (1978-1982)	농업위기 (1960-70년대)
관심도 분화		계급 중요도↑	계급 중요도↑	계급 중요도↑
프레이밍	주도세력	도시 원주민 운동가	마야주의 운동가	급진 원주민운동가
	쟁점	종족	종족	계급
쟁점 평가		관심도≠쟁점	관심도≠쟁점	관심도=쟁점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		계급적 정체성	계급적 정체성	계급적 정체성
정치행태		실패	실패	농민연합위원회

표4-4 과테말라 행위자의 정체성 설정과 조직 형성

제4절 소결: 중남미 원주민의 정치행태 결정요인

두 국가의 분석을 종합해본 결과, 국가중심 계급조합정책, 군부대량학살, 경제적 긴축정책이라는 세 가지 외생사건 발생시 볼리비아와 과테말라에서 원주민 동원을 시도한 조직은 크게 종족조직과 계급조직으로 나타났다. 두 조직의 원주민 동원 양상은 원주민의 종족성 중요도와 정치혁신가의 선점이슈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볼 수 있다.

a. 원주민의 종족성 중요도 증가, 정치혁신가의 종족이슈 선점:

볼리비아 종족조직- 국가후원 농민조합모델시기 카타리스트타 운동
볼리비아 종족조직- 군부대량학살시기 농업노동자 유일 노조동맹

b. 원주민의 종족성 중요도 증가, 정치혁신가의 계급이슈 선점:

볼리비아 계급조직- 국가후원 농민조합모델시기 좌파연합
볼리비아 계급조직- 군부대량학살시기 MNR

c. 원주민의 종족성 중요도 감소, 정치혁신가의 종족이슈 선점:

과테말라 종족조직- 국가주도 노동조합정책시기 마야주의 운동
과테말라 종족조직- 군부대량학살시기 마야주의 운동
과테말라 종족조직- 농업위기시기 마야주의 운동

d. 원주민의 종족성 중요도 감소, 정치혁신가의 계급이슈 선점:

볼리비아 종족조직- 경제적 긴축정책시기 코카재배업자 동맹
과테말라 계급조직- 국가주도 노동조합정책시기 좌파게릴라
과테말라 계급조직- 농업위기시기 CUC

위 양상 중 원주민 대중의 동원에 성공한 조직은 a와 d였다. 외생사건이

원주민의 종족적 제도나 관습을 위협해 종족 정체성 보존의 관심도가 높아졌을 경우(a), 종족이슈를 선점한 정치혁신가는 원주민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볼리비아의 종족조직인 카타리스타 운동과 농업노동자 유일 노조동맹이 이에 해당한다. 외생사건이 원주민의 경제적 조건을 위협해 계급적 정체성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종족성 중요도가 감소했을 때에도(d), 정치혁신가가 원주민 대중의 관심사를 파악해 해당 이슈를 선점한 경우 원주민 대중의 동원에 성공할 수 있었다. 대체로 중남미 원주민들은 종족적 정체성의 중요도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계급적 정체성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따라 경제적 이슈를 선점한 조직이 원주민 동원에 성공하였다. 볼리비아 코카재배업자 동맹은 기존 종족정치 연구의 입장과 달리 원주민의 종족의식이 낮을 때 정치혁신가의 전략적 이슈선점으로 종족정치가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계급조직인 좌파게릴라와 CUC도 계급이슈를 통해 대중 동원에 성공하였다. 과테말라 계급조직의 원주민 동원 성공은 동시에 종족조직의 부진을 보여준다. 해당 조직은 종족이슈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종족조직의 성공사례로 보기 어렵다.

이와 대조적으로 원주민 대중의 동원에 실패한 조직은 b와 c다. 종족성 중요도가 증가했을 때 정치혁신가의 계급 이슈 선점(b)은 원주민들의 정치적 연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볼리비아의 계급조직인 좌파연합과 MNR은 원주민 대중의 동원에 실패했다. 또한 원주민의 종족성 중요도가 감소했을 때도, 정치혁신가가 원주민 대중의 정치적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종족이슈만을 고집해(c) 역시 대중동원에 실패했다. 과테말라의 종족조직인 마야주의 운동은 정치적 혁신가가 이질적 원주민 행위자의 정치적 요구를 파악하지 못해 대중동원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원주민 대중은 관심도와 쟁점의 불일치로 정치혁신가와 심리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고 타자화했다.

종족조직이 원주민대중의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급조직의 지도부가 경제적 이슈를 부각시켰을 때, 원주민은 계급조직에의 정치적 연대를 결정했다. 원주민의 입장에서 농민이나 노동자와 같은 계급적 정체성의 선택은 기존체제의 구성원으로 소속돼 사회적 불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현실적 생존권 차원의 정치적 투쟁이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없애려 시도하기보다 우회적으로 차별을 피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

원주민의 종족성 중요도 증가, 정치적 혁신가의 전략적 이슈선점

두 국가의 종족정치 분석을 종합한 결과, 종족조직의 대중동원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원주민의 종족성 중요도 증가와 정치적 혁신가의 전략적 이슈선점이었다. 종족성 중요도가 증가할수록 원주민들은 종족지도부의 프레이밍에 쉽게 동화되었다. 종족성 중요도가 감소했을 때도 정치적 혁신가의 선점이슈가 원주민의 관심사와 부합했을 경우 종족조직에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볼리비아 정치적 혁신가는 원주민의 관심도에 따라 계급과 종족을 아우르는 유연한 프레이밍 전략을 통해 종족조직을 성공적으로 형성시켰다. 볼리비아 원주민 대중의 주체적 정체성 설정 과정에 따라 정치적 혁신가의 전략은 변화했고, 볼리비아 원주민 대중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성격의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과테말라의 정치적 혁신가는 원주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지 않았고 종족적 프레이밍 전략을 고집한 결과 원주민들의 외면을 받아 결국 종족조직을 형성시키지 못했다.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정리

본 연구는 종족 정체성의 구성과정에서 원주민 집단의 종족의식이 차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질적 원주민 행위자의 경험적 판단에 따라 종족정치에 대한 참여나 지지가 달라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과정추적방법과 국가간 비교연구방법을 토대로 유사한 외생사건 하에서 발생한 볼리비아와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정치적 상호작용 과정을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두 국가 원주민들의 각기 다른 내부조건에 따라 국가조합정책, 군부대량학살, 농업위기라는 유사한 외생사건에 대한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전통적 사회질서를 유지해오던 볼리비아 원주민들은 근대화 정책과 충돌해 종족 공동체에 대한 위협을 크게 느꼈다.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 종족이슈를 선점한 조직에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계약직 노동자로서 계급적 집단의식을 공유하고 있던 과테말라 원주민들은 근대화 정책을 큰 갈등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테말라 원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이슈를 배제한 채 종족적 이슈만을 주장하는 종족조직에 연대할 정치적 유인이 부족했다. 당시 좌파연합은 원주민의 계급적 정체성에 호소했고, 이는 원주민의 관심사와 부합하여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국가비교연구를 통해 원주민들의 개별적 조건에 따라 거시구조적 변수의 영향력과 프레이밍에 대한 정치해석이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원주민들의 종족성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정치적 혁신가가 원주민들의 상이한 요구와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이슈를 선점했을 때 종족조직에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1980년대 정부의 경제적 긴축정책이 시행되어 광부가 대량 해고되고 코카 재배업이 금지 당하자, 원주민들은 경제적 위협을 크게 느끼고 상대적으로 종족성 중요도는 낮아졌다. 이때 볼리비아의 정치혁신가들은 1980년대 정부의 경제적 긴축정책에 맞서 코카라는 원주민들의 경제적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에 나섰다. 종족 지도부의 경제이슈 선점은 원주민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했다.

이에 반해 과테말라 정치혁신가의 선점이슈는 원주민의 정치적 요구와 무관하게 문화적 종족이슈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에 원주민들은 내부조건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마야주의 운동가들을 외면하고 좌파연합에 연대하였다. 이는 종족성 중요도가 낮은 원주민의 전략적 선택을 보여준다. 개별 행위자의 입장에서 좌파조직에의 연대는 경험적 판단에 의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일종의 자구(自救)책으로 기능했다. 오랜 역사 동안 불평등 구도가 내면화된 사회에서, 사회질서의 전면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보상과 함께 위험도도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적 정체성의 선택은 기존체제의 구성원으로 소속돼 사회적 차별을 우회하고자 하는 현실적 생존권 차원의 정치적 투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원주민의 정치행태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사회운동 분석에서 원주민은 정치적 의식이나 의지의 결핍으로 누군가에 의해 이끌어져야 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그려지거나(Mignolo 2008), 저항적 집단 의식이 내재해 잠재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양측의 어떤 입장에서든 종족적 정체성의 범주를 넘어선 원주민의 다양한 선택지와 주체적 판단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석결과 원주민은 종족뿐만 아니라 성, 세대, 계급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며, 다양한 내부조건에 의해 각기 다양한 선호와 요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질적 원주민 행위자의 주체적 판단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원주민의 행위주체성을 발견했다. 더불어 정치적 혁신가의

입장에서 이질적 원주민 행위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정치적 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논의의 확장

본 연구는 학문적·실천적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한 행위자의 정치해석모델은 구성주의적 시각의 정체성 연구와 정치행태연구를 연결하여 종족정치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정체성을 사회구성 산물로 보는 구성주의는 오늘날 학문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대립하는 원초주의는 금기어(“A dirty word”)로 여겨질 정도다(Fischer 1999). 그러나 종족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여전히 종족성이 정치경제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력에만 집중하는 한계를 보인다. 종족성은 원초적으로 내재하는 집단의식으로 간주되고, 정치경제적 요인이 종족성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간과되고 만다. 이에 본 연구는 구성주의 정체성 연구를 정치행태과정에 연결하는 시도를 통해, 행위자의 정치해석과정을 중심으로 거시변수와 미시변수를 연결하여 다각적인 정치동학 분석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의 동학을 이해하는 일반 이론으로 확장해볼 수 있다. 원주민은 피지배-지배 구도를 통해 사회의 주변적 존재로 차별 받아온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이다. 소수자는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주류집단의 정체성 정치가 낳은 근대의 유산”(전영평 외 2010)으로 오늘날 근대화를 겪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존재하며 이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노동력과 자본의 급격한 이동으로 종족적 측면에서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해가고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국가와 문화권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은 “동남아 노동자”나

“다문화가정” 등의 표현으로 일반화되어 제도적 정책이나 학문적 논의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주목해볼 만 하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소수자 연구는 고정적인 정체성 논의에 매몰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 내의 이질적 행위자를 밝혀냄으로써 다양한 이슈가 중첩된 현대사회의 실제 갈등구도를 찾아 내고 이에 따른 정치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개인을 둘러싼 다중적 정체성 가운데 어떤 갈등을 정치화해 특정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는가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문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과정추적과 국가비교 연구방법은 종속성 중요도의 측정과정과 국가비교를 위해 변수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정체성 구성의 인과적 기제를 면밀히 살펴 기존 이론의 한계를 밝히고 새로운 이론을 설계하는 기반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추후 통계적 연구 방법을 통해 정체성 측정의 정확성과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주목한 원주민 행위자의 정치해석과정 분석은 정당연구 및 선거연구 등 다양한 중남미 정치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원주민의 종속성 중요도가 낮은 상황에서 다양한 유인을 고려한 행태연구는, 다중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균열의 갈등양상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1. 국문(Korean)

- 김광억. 2006. “종족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김광억 외.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 김달관. 2014. “볼리비아 협약민주주의의 등장, 전개 그리고 위기: 1982-2005.” 『중남미 연구』. 제33집 제3호, 143-177.
- . 2013. “식민시대 볼리비아 사회와 노동체계의 특징.”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4집 제2호, 27-64.
- 김기현. 2012. 『라틴아메리카 인종과 정치』. 파주: 한국학술정보.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제1집 제1호.
- 김은중. 2008. “권력의 식민성과 볼리비아 원주민 사회운동.”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9집 제1호, 29-57
- 노용석. 2014. “문화, 문학: 과테말라 내전 원주민 학살의 전개와 배경.” 『비교문화연구』. 제34집, 147-172.
- 박수경. 2014. “누에바 에스파냐의 사회정치적 단위로서의 원주민공동체.” 『라틴아메리카연구』 제27집 제4호, 209-235.
- 박종일. 2006. “다문화시대의 정체성 연구를 위한 ‘에스니시티(Ethnicity)’의 개념화.” 『2006 전국사회학 대회』 283-285.
- 장용규. 2002. “동부 아프리카의 언어정책과 스와힐리 정체성의 형성.” 『아프리카 연구』. 제15집, 3-28.
- 전영평 외. 2010. “한국의 소수자 정책: 담론과 사례.” 『한국행정학보』. 제44집 제4호, 323-333.
- 정이나. 2015.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 운동 정치.” 『중남미 연구』. 제34집

제2호, 259-287.

최진숙. 2005. "연구논문: 인종화(Racialization) 와 종족화(Ethnicization) 사이의 이중 구속: 과테말라 마야 인디언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11집 제2호, 143-172.

2. 영문(English)

Abrams, D. Wetherell et al. 1990. "Knowing what to think by knowing who you are: Self-categorization and the nature of norm formation, conformity and group polar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29, no.2, 97-119.

Albó, Xavier. 1996. "Bolivia: making the leap from local mobilization to national politics."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vol.29, 15-20.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Ankar, Carsten. 2008. "On the applicability of 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 and the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in compar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vol.11, no.5, 389-401.

Barrón, Manuel. 2008. "Gender and Ethnic Inequalities in Latin America: a multidimensional comparison of Bolivia, Guatemala and Peru." *CRISE Working Paper* no. 32 Centre for Research on Inequality, Human Security and Ethnicity.

Barth, Fredrik. 1998.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Waveland Press.

Bartolini, Stefano, and Mair, Peter. 2007. *Identity, competition and*

- electoral availability: the stabilisation of European electorates 1885-1985*. ECPR Press.
- Bates, Robert H. 1983. "Modernization, ethnic competition, and the rationality of politics in contemporary Africa." *State versus ethnic claims: African policy dilemmas* vol.152.
- Bateson, G. 1972. *Steps to an ecology of mind: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 San Francisco: Chandler.
- Benford, Robert D. and Snow, David A. 2000.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6. no.1, 611-639.
- Bergami, M. and Bagozzi, R. P. 2000. "Self-categorization, affective commitment and group self-esteem as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in the organ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39, no.4, 555-577.
- Birnir, Jóhanna Kristín. 2006. *Ethnicity and elector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ckett, Charles D. 2005. *Political movements and violence in Central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ubaker, Rogers. 1996. *Nationalism refrained: Nationhood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new Europe*. Cambridge.
- . 2004. *Ethnicity without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ndra, Kanchan. 2005. *Why Ethnic Parties Succeed: Patronage and Ethnic Head Counts in Ind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2007. *Why ethnic parties succeed: Patronage and ethnic head counts in Ind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ng, Dennis, and Kim, Dukhong. 2006. "The experiences and effects of economic status among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100, no.3, 335-351.
- Cleaves, Peter S., and Scurrah, Martin J. 1980. *Agriculture, bureaucracy, and military government in Peru*. Cornell University Press.
- Cohen, Ronald. 1978. "Ethnicity: Problem and focus in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79-403.
- Collier, Ruth Berins, and David Collier. 2002. *Shaping the political arena*.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 1999. *Paths toward democracy: The working class and elites in Western Europe and South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nnor, Walker. 1972. "Nation-building or nation-destroying?." *World politics* vol.24.no.3, 319-355.
- Cornell, Stephen, and Hartmann, Douglas. 2006. *Ethnicity and race: Making identities in a changing world*. Sage Publications.
- Eckstein, S., and Merino, M. A. G. (Eds.). 2001. *Power and popular protest: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riksen, Thomas Hylland. 1993. "Formal and informal nation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16, no.1,1-25.
- Fearon, James and Laitin, David. 2000. "Violenc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Ethnic Ident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4, no.4, 845-877.
- Ferree, Karen E. 2004. "The Micro-Foundations of Ethnic Voting: Evidence from South Africa." *Afrobarometer Working Paper*

vol. 40.

- Fischer, Edward F. 1999. "Cultural Logic and Maya Identity: Rethinking Constructivism and Essentialism 1." *Current Anthropology* vol.40, no.4, 473-500.
- . 2004. "Beyond victimization: Maya movements in post-war Guatemala." *The Struggle for Indigenous Rights in Latin America*.
- Gamson, W. A. et al. 1982. *Encounters with unjust authority*. Homewood: Dorsey Press.
- Garrard-Burnett, Virginia. 2010. *Terror in the Land of the Holy Spirit: Guatemala under General Efraín Ríos Montt 1982-1983*. Oxford University Press.
- Geertz, Clifford. 1963. "The integrative revolution: primordial sentiments and civil politics in the new states."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 George, Alexander L., and Bennett, Andrew.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MIT Press.
- Giddens, Anthony.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eene, Shane. 2006. "Getting over the Andes: the geo-eco-politics of indigenous movements in Peru's twenty-first century Inca empire."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38. no.2, 327-354.
- Hall, Gillette, and Patrinos, Harry Anthony, eds. 2006. *Indigenous peoples,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andy, Jim. 1985. "The Guatemalan Revolution and Civil Rights: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Judicial Process under Juan José

- Arévalo and Jacobo Arbenz Guzmán." *Canad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vol.10, no.19, 3-21.
- Harff, Barbara, and Gurr, Ted Robert. 2004. "Ethnic conflict in world politics." *Refugee Survey Quarterly* vol.23, no.3.
- Healy, Kevin. 1991. "Political ascent of Bolivia's peasant coca leaf producers."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87-121.
- Hill, Jane. 1998. "Today There Is No Respect: Nostalgia, Respect, and Oppositional Discourse in Mexicano(Nauatl) Language Ideology." Schieffelin, Bambi, K A. Woolard, & P V. Kroskrity (eds.) *Language Ideologies: Practice and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8-86
- Hirschman, A. O. 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obsbawm, E. J. 201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gg, Michael A. and Mullin, Barbara-A. 1999. "Joining groups to reduce uncertainty: Subjective uncertainty reduction and group identific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gnition*.
- . and Terry, Deborah I. 2000. "Social identity and self-categorization processes in organizational contex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5, no.1, 121-140.
- Horowitz, Donald L. 1985. *Ethnic Groups in Confli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lein, Herbert S. 2011. *A concise history of Boliv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hl, Benjamin, and Farthing, Linda C. 2006. *Impasse in Bolivia: Neoliberal hegemony and popular resistance*. Zed Books.
- Konefal, Betsy. 2010. *For Every Indio who Falls: A History of Maya Activism in Guatemala, 1960-1990*. UNM Press.
- Kurzban, Robert et al. 2001. "Can Race be Erased? Coalitional Computation and Social Categoriz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5387-15392.
- Lagos, Maria L. 1994. *Autonomy and power: the dynamics of class and culture in rural Boliv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aitin, David. 1996. *Identity in Formation: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s in the Near Abroa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anza, Martha. 2006. "Bolivia: Perfil de género." *La Paz: Bolivia. JICA*.
- Larson, Brooke. 2004. *Trials of Nation Making. Liberalism, Race, and Ethnicity in the Andes, 1810-191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zarsfeld, Paul Felix et al. 1968.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ipset, Seymour M. and Rokkan, Stein.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Free.
- Madrid, Raúl L. 2005. "Indigenous partie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47, no.4, 161-179.
- . 2012. *The rise of ethnic politics in Lat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cini, Luca. 2005. *Horizontal inequality and communal violence: evidence from Indonesian districts*. Centre for Research on

- Inequality, Human Security and Ethnicity, University of Oxford.
- Mattiace, Shannan L. 2003. *To See with Two Eyes: Peasant Activism & Indian Autonomy in Chiapas, Mexico*. UNM Press.
- McAdam, Doug et al. 1988. "Social movements." *Handbook of sociology*.
- , et al. 1996.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rthy, John D. and Zald, Mayer N. 1977.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12-1241.
- McGarry, John, and O'leary, Brendan. 2013. *The politics of ethnic conflict regulation: Case studies of protracted ethnic conflicts*. Routledge.
- Morales, Juan Antonio, and Sachs, Jeffrey D. 1989. "Bolivia's economic crisis." *Developing country debt and the world econom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7-80.
- Murphy, John. 2007. *In-between music: The musical creation of cholo identity in Cochabamba, Bolivia*. University of North Texas.
- Nagel, Joane. 1994. "Constructing ethnicity: Creating and recreating ethnic identity and culture." *Social Problems* vol.41, no.1.
- Nobles, Melissa. 2000. *Shades of citizenship: Race and the census in modern politics*. Stanford University Press.
- Nutini, Hugo G. 1997. "Class and ethnicity in Mexico: Somatic and racial considerations." *Ethnology*. 227-238.
- Olson, Mancur.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inter, James. 1999. *Guatemala: false hope, false freedom: the rich, the poor, and the Christian Democrats*. Latin America Bureau.
- Pan, Zhongdang, and Kosicki, Gerald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vol.10, no.1, 55-75.
- Plaza Pública. 2011. "En ruta para juzgar el genocidio(27 06 11)." Plaza Pública
- Posner, Daniel. 2004. "The Political Salience of Cultural Difference: Why Chewas and Tumbukas are Allies in Zambia and Adversaries in Malawi."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8, no.4, 529-545.
- Postero, Nancy Grey. 2004. *The struggle for indigenous rights in Latin America*. Sussex Academic Press.
- . 2007. *Now we are citizens: indigenous politics in postmulticultural Boliv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Rivera Cusicanqui, Silvia. 1987. "Oppressed but not defeated. Peasant struggles among the Aymara and Qhechwa in Bolivia, 1900-1980." *Report UNRISD*.
- Sanford, Victoria. 2003. *Buried secrets: Truth and human rights in Guatemala*. Palgrave Macmillan.
- Santiso, Javier. 2003. *The political economy of emerging markets: Actors, institutions and financial crises in Latin America*. Palgrave Macmillan.
- Schattschneider, E. E. 1975.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Dryden Press
- Schelling, Thomas. 1978. *Micromotives and Macrobehavior*. New York: Norton.

- Scheufele, Dietram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9, no.1,103-122.
- Schirmer, Jennifer G. 1998. *The Guatemalan military project: A violence called democrac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chön, Donald A., and Rein, Martin. 1995. *Frame reflection: Toward the resolution of intractable policy controversies*. Basic Books.
- Seligson, Mitchell A., and Booth, John A. 2010. "Crime, hard times, and discontent." *Journal of Democracy* vol.21, no.2, 123-135.
- Stavenhagen, Rodolfo. 2002. "The Return of the native: the Indigenous Challenge in Latin America." *Occasional Paper* No. 27, 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 Stewart, Frances, ed. 2008. *Horizontal inequalities and conflict*. London: Palgrave Macmillan.
- Strobele-Gregor, Juliana. 1996. "Culture and political practice of the Aymara and Quechua in Bolivia: autonomous forms of modernity in the Ande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 Tannen, Deborah. 1993. "What's in a frame? Surface evidence for underlying expectations." *Framing in discourse* vol.14.
- Tiebout, Charles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16-424.
- Tilly, Charles. 1978.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New York: McGraw-Hill.
- Toranzo Roca, Carlos. 2006. "Bolivia: una revolución democrática." *Nueva Sociedad*.
- Triandafyllidou, Anna, and Fotiou, Anastasios. 1998. "Sustainability and modernity in the European Union: A frame theory approach to policy-making."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vol.3, no.1.

- Turner, J. C.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Advances in group processes* vol.2, 77-122.
- . et al.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Cambridge: Basil Blackwell.
- Tversky, Amos, and Kahneman, Daniel. 1973. "Availability: A heuristic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Cognitive psychology* vol.5.no.2 207-232.
- .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453-458.
- Urciuoli, Bonnie. 1996. *Exposing Prejudice: Puerto Rican Experiences of Language, Race, and Class*. Boulder: Westview Press.
- Van Cott, Donna Lee. 2005. *From movements to parties in Latin America: the evolution of ethnic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ijk, Teun A. 1977. "Semantic macro-structures and knowledge frames in discourse comprehension." *Cognitive processes in comprehension*. 3-32.
- Vasil, Raj Kumar. 1980. *Ethnic politics in Malaysia*. Humanities Press.
- Wade, Peter. 1997. *Race and ethnicity in Latin America*. vol.3. Pluto press.
- Warren, Kay B. 1998. *Indigenous movements and their critics: Pan-Maya activism in Guatemal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bber, J. 2011. *From rebellion to reform in Bolivia: Class struggle, indigenous liberation, and the politics of Evo morales*. Chicago: Haymarket Books.

- Wolfinger, Raymond E. 1965. "The Development and Persistence of Ethnic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59, no.4, 896-908.
- Yashar, Deborah J. 2005. *Contesting Citizenship in Lat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oung, Crawford. 1979. *The politics of cultural pluralism*. Univ of Wisconsin Press.

3. 서문(Spanish)

- Albó, Xavier. 2008. Movimientos y poder indígena en Bolivia, Ecuador y Perú. Vol. 71. Cipca, 2008.
- Arias, A. 1983. *El movimiento indígena en Guatemala, 1970-1983*, Asociación de Trabajadores de la Cultura de Guatemala ATCG.
- Bastos, S., and Camus, M. 2003. *Entre el mecapal y el cielo: desarrollo del movimiento maya en Guatemala*. Facultad Latinoamericana de Ciencias Sociales.
- Brett, R. L. 2006. *Movimiento social, etnicidad y democratización en Guatemala, 1985-1996*. F&G.
- CEPAL. 2006. *Pueblos indígenas y afrodescendiente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información sociodemográfica para políticas y programas*.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
- Gordillo Claire, José. 2000. *Campesinos revolucionarios en Bolivia: identidad, territorio y sexualidad en el Valle Alto de Cochabamba, 1952-1964*. La Paz: Plural.
- Guzmán, Augusto, and Toledo, Fernando Vaca. 1998. *Historia de Bolivia* vol. 829. Editorial" Los Amigos del Libro.

- INE(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de Bolivia. 2012. *Bolivia: Censo Nacional de Población y Vivienda 2012*. Bolivia: INE.
- INE(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de Guatemala. 2014. República de Guatemala 2014. Guatemala: INE
- Klein, Herbert S. 1968. *Orígenes de la revolución nacional boliviana: la crisis de la generación del Chaco*. Juventud.
- Platt, Tristan. 1999. *La persistencia de los ayllus en el norte de Potosí: de la invasión europea a la República de Bolivia*. Fundación Diálogo.
- Regalsky, Pablo. 2006. "América Latina: Bolivia indígena y campesina. Una larga marcha para liberar sus territorios y un contexto para el gobierno de Evo Morales." *Herramienta* vol.31.
- Levaggi, Abelardo. 2001. "República de indios y república de españoles en los reinos de Indias." *Revista de estudios histórico-jurídicos* vol.23, 419-428.
- Ríos, César Armando Rojas. 2007. *Democracia de alta tensión: conflictividad y cambio social en la Bolivia del siglo XXI*. Plural editors.
- Simon, Michael. 2003. "La Comisión para el esclarecimiento histórico, verdad y justicia en Guatemala." *Boletín Mexicano de Derecho Comparado* vol.106,147-203.
- Stefanoni, Pablo. 2010. "Bolivia después de las elecciones:¿ a dónde va el evismo?." *Nueva sociedad* vol.225.
- Tejera Gaona, Héctor. 1993. "La comunidad indígena y campesina de México." *Arizpe*.
- Ticona Alejo et al. 1995. "Votos y wiphalas: campesinos y pueblos originarios en democracia." *Cuadernos de investigación* vol.43.
- . 2000. "Organización y liderazgo aymara: la experiencia

indígena en la política boliviana 1979-1996." La Paz:
Universidad de la Cordillera.

Zook, D. H., Arnade, C. W., and Ynsfran, P. M. 1962. *La conducción de la Guerra del Chaco*. Policarpo Artaza.

Abstract

Indigenous People's Multiple Identity and Political Behavior in Latin America

The Ethnic Politics in Bolivia and Guatemala

Jeon, Sang He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dynamics of ethnic politics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of ethnicity. After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ethnic parties emerged in Latin America, but the levels of success were very different across countries.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strategic choice of heterogeneous indigenous actors, which is overlooked in the current literature, leads to diverse patterns of ethnic politics. Most studies focus on macro-factors such as group scale or institutions in the occurrence and development of ethnic politics. However, the politicization of ethnic cleavages in Latin America cannot be

fully explained by these approaches. They fail to deal with empirical counterexamples which occurred under similar social conditions, since they generalized the political preference and behavior patterns of indigenous group. This study tries to connect constructivist approach of ethnicity and political behavior theories to analyze interaction between heterogeneous actors and structures which leads a diversity of ethnic politics.

This study provides an alternative framework by connecting the macroscopic-microscopic analysis. Unlike primordial assumption of preceding researches, this study assumes that ethnic identities are socially constructed and so-called indigenous people have multiple identities. According to this model, political commitment to ethnic organization depends on the relative salience of ethnicity among multiple identities determines. The heterogeneous conditions of indigenous groups affect the influence of exogenous events and political entrepreneur's framing, which determine the salience of ethnicit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framework, this thesis presents a comparative study of Bolivia and Guatemala. Both countries are appropriate for Most Similar Systems Design in that they have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similar physical conditions. However, different political interpretation of indigenous people leads to contrasting results.

When the governments took effect state-sponsored peasant union policy, Bolivian indigenous people had maintained traditional social structure and collective land tenure. The destruction threat of community paved the way of increasing the salience of ethnicity. Military massacre and economic crisis also threatened the right to live. At the juncture the framing of political entrepreneur transformed the class issue into ethnic issues to meet the requirement of Bolivian indigenous people. On the contrary, Guatemalan indigenous people who had worked as a wage laborer in plantations relatively easily accepted the state's peasant union policy. Peasant union helped for indigenous people to share class

identity. When Military massacre and agriculture threatened existence and economic rights of indigenous group, activists of ethnic organizations just looked their safety so that they were all absorbed in cultural solutions which were away from real life of indigenous people. Eventually ethnic entrepreneur didn't get support from Guatemalan indigenous people.

This study aims to accentuate that political interpretation process of heterogeneous actor which changes social cleavage pattern itself. Indigenous people strategically interpret exogenous events and framing according to the salience of ethnicity determined by their conditions and interests. The construction of social identity lasts a lifetime and group boundaries keep changing. By connecting the constructive process of social identity to political behavior, this study provides a new perspective to broaden understanding of political dynamics surrounding multiple social cleavages such as gender, generation, religion, race and class.

Keywords: ethnic politics, salience of ethnicity, collective action frames, self-categorization, Bolivia, Guatemala

Student Number: 2012-22987